

컨슈머인사이트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

2023. 07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국내외 여행 생태계와 여행소비자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첫째



현재의 국내외여행 소비자 행태를
월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여행 시장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코로나 이전(2019년)의 상황과
월 단위로 그 결과를 비교해
여행 시장의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셋째



현상 평가와 과거대비 자료 분석을 통해
다가올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격변하는 여행 소비자 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적응과 예측을 도와
여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국내·해외 여행 동향 요약

요약

국내외 여행의 ▲지난 1년간의 변화 ▲코로나 이전 대비 현 상황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현황 ▶ 숙박여행의 평균기간은 2.02박, 총 경비와 1일당 경비는 각각 23.0만원, 7.6만원으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음. ▶ '호텔' 이용률이 아직 높으나(27.7%) '23년 3월(32.5%) 이후 하락세임. ▶ 여행정보 검색은 '공공 · 상업적인 채널'보다 'SNS'가 압도적 우위임.	현황 ▶ 해외여행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던 아시아권의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고, 유럽이 전월 대비 상승함. ▶ 이에 따라 해외여행의 평균기간은 6.20박(TCI 115), 총 경비와 1일당 경비는 각각 183.4만원(TCI 135)과 25.5만원(TCI 121)으로 지난 6월에 비해 상승함. 이는 여름휴가의 효과로 보임.
코로나 이전 대비 ▶ TCI로 보면, 여행 경험률만 100에 미치지 못하고(95), 그 외 여행 기간, 총 비용, 일 평균 비용은 모두 100을 넘어(103~107) 코로나 이전을 상회함.	코로나 이전 대비 ▶ 지난 6개월 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급상승세로 26.0%에 달했으나, 코로나 전 43%에 크게 미치지 못함(TCI는 60).
전망 ▶ 여행정보 검색에서 'SNS'의 우세가 여전한 가운데 '공공 · 상업적인 채널'의 부진은 점점 심해지고 있음. ▶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이 시급함. ➡ '23년 7월 '이달의 토픽'으로 선정되어 분석 · 보고됨(23.08.29) <u>*여행정보 검색, 공공 · 상업 밀어내고 개인이 주도*</u>	전망 ▶ 해외여행 경험률(지난 6개월)이 코로나 전 수준에 이르기에는 현 추세로 보면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여행지역은 아시아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여행실태							여행 계획		
	여행 경험률	기간	총 비용	일 평균 비용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숙박	여행 계획률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국내여행	66.7% (지난 3개월)	2.02(박)	23.0(만원)	7.6(만원)	1️⃣ 경상권 26.6%	1️⃣ 자연경관 24.5%	1️⃣ 호텔 27.7%	74.9% (향후 3개월)	1️⃣ 강원도 25.7%	1️⃣ 자연경관 28.3%
TCI	95	105	107	103	105	95	121▲	99	100	98
해외여행	26.0% (지난 6개월)	6.20(박)	183.4(만원)	25.5(만원)	1️⃣ 아시아 77.3%	-	-	45.3% (향후 6개월)	1️⃣ 아시아 77.6%	-
TCI	60▽	115▲	135▲	121▲	102	-	-	79▽	110	-

* TCI(Travel Corona Index 여행코로나지수)는 2023년 당월 결과값을 '코로나 발생 전년(19년) 동월 결과값'으로 나눈 수치임
:(2023년 7월 결과)/(2019년 7월 결과) * 100

** ▲ ▽ 는 TCI(여행 코로나 지수) 100 대비 ±10 이상인 수치임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 해당 자료는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 8월 부터 매주 시행하고 있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기초로 함.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 방법

표본의구성(할당)

조사기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컨슈머인사이트 86만 온라인 비편향 패널
- 매주 500명 (연간 누적 26,000명, 3개월 내 동일응답자 참여 불가)
- 성X연령 및 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Online/Mobile -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7월 전체		(2,500)	100.0
성별	남성	(1,271)	50.9
	여성	(1,229)	49.1
연령대	20대	(432)	17.3
	30대	(446)	17.8
	40대	(544)	21.7
	50대	(580)	23.2
	60대 이상	(499)	19.9
성BY 연령대	남성 20대	(226)	9.1
	남성 30대	(231)	9.2
	남성 40대	(275)	11.0
	남성 50대	(295)	11.8
	남성 60세 이상	(244)	9.8
	여성 20대	(206)	8.2
	여성 30대	(215)	8.6
	여성 40대	(269)	10.8
	여성 50대	(285)	11.4
	여성 60세 이상	(254)	10.2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결혼 여부	미혼	(818)	32.7
	기혼	(1,555)	62.2
	기타	(127)	5.1
가구 상황	미혼	(818)	32.7
	신혼기(자녀 없음)	(161)	6.4
	자녀 유아&성장 (막내 입학 전~초등생)	(435)	17.4
	자녀 성장(막내 중고생)	(212)	8.5
	자녀 성인(막내 대학)	(631)	25.3
	자녀 독립(막내 결혼)	(242)	9.7
가구 월소득 (모름 제외)	300만원 미만	(299)	12.8
	300~500만원 미만	(671)	28.8
	500~700만원 미만	(651)	27.9
	700만원 이상	(709)	30.4

- 매주 '월요일~일요일' 자료 수집 : 연중 무휴(연 52주)

2023년 6월 (전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29	30	31	1	2	3
4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023년 07월 (당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2023년 08월 (익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2022년 7월 (전년 동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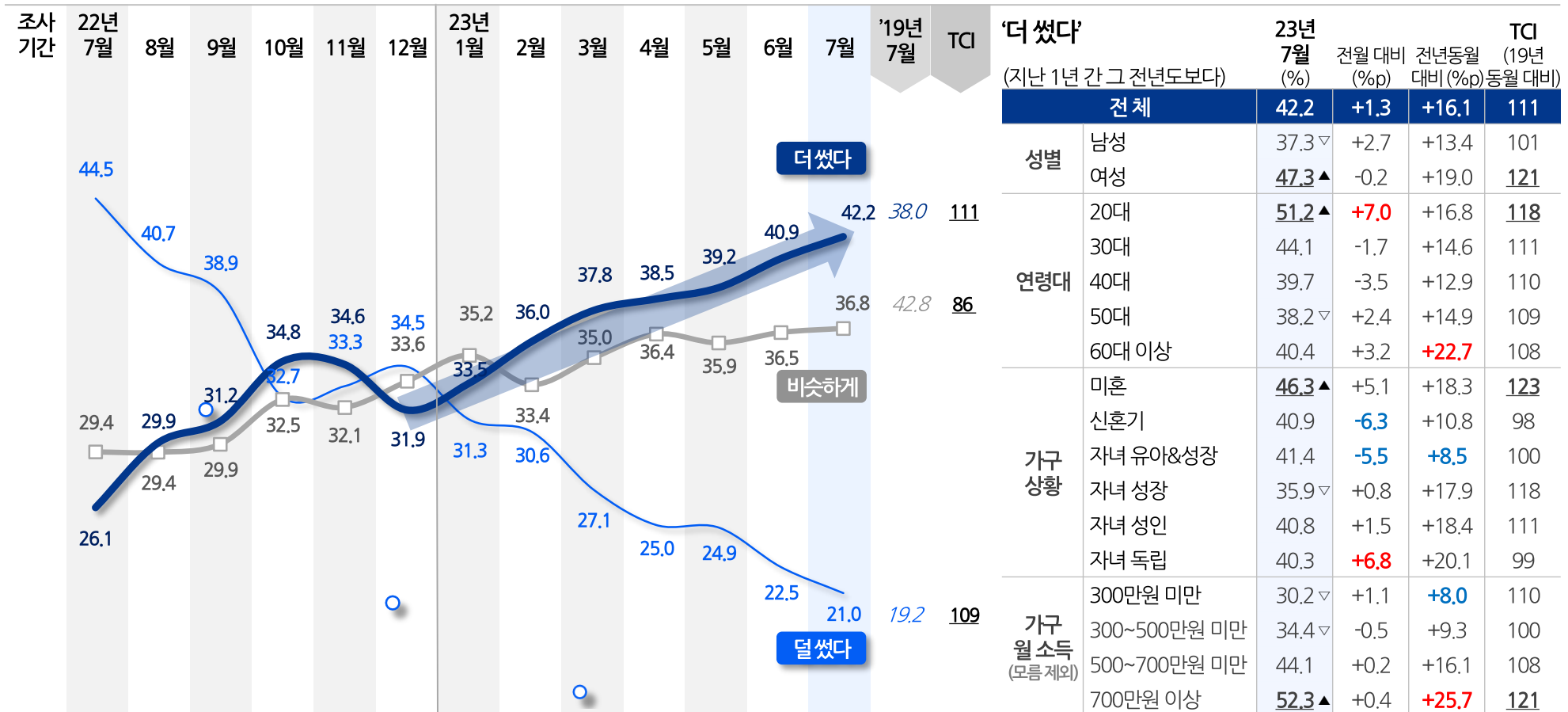
1. 여행비 지출 동향 (지난 1년)

II-1. 국내여행 동향

8/40

- 지난 1년간 지출한 관광·여행비를 그 전년도에 비해 ‘더 썼다’는 반응은 지난해 말 이후로 꾸준히 상승했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여 42.2%에 이릅니다.
-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7월) 대비 TCI는 111로 물가상승과 여행붐이 합쳐진 결과임.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20대 △미혼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더 썼다’ 응답이 많으며, TCI도 118 이상으로 이들이 높음.

[단위: %]



※ 조사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해외 합하여 관광·여행비로 쓴 비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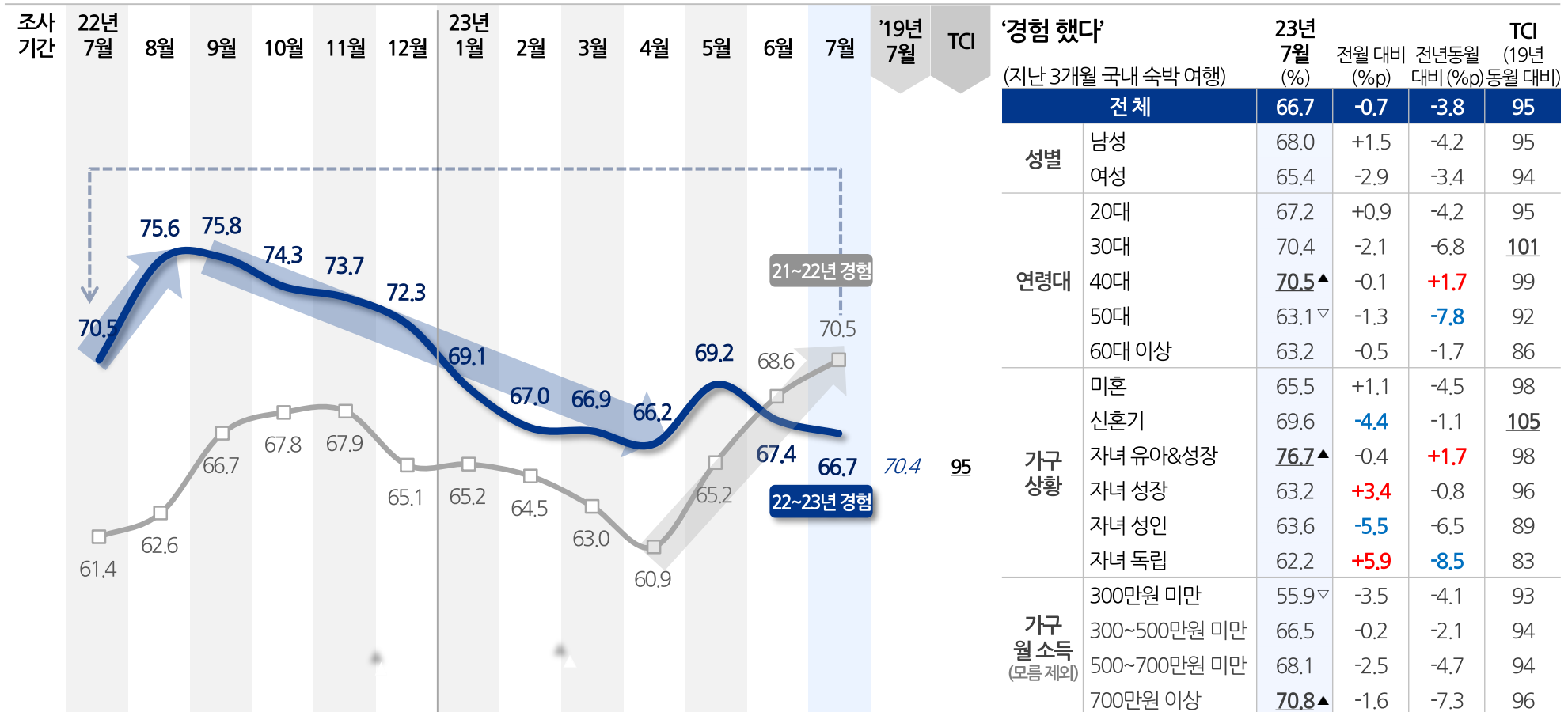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지난 3개월)

- 지난 3개월 간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6.7%로 올 5월 8개월만에 반등한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이는 전년 동월(70.5%) 대비 3.8%p, 전월(67.4%) 대비 0.7%p 낮은 수치임.
- 인구특성별로는 △40대 △자녀 유아 및 성장기 △가구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높음.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TCI지수는 95로 코로나 이전보다 다소 낮으나, 여행 재개에 따른 이상고점('22년 9월: 75.8%) 이후 안정기에 들어선 것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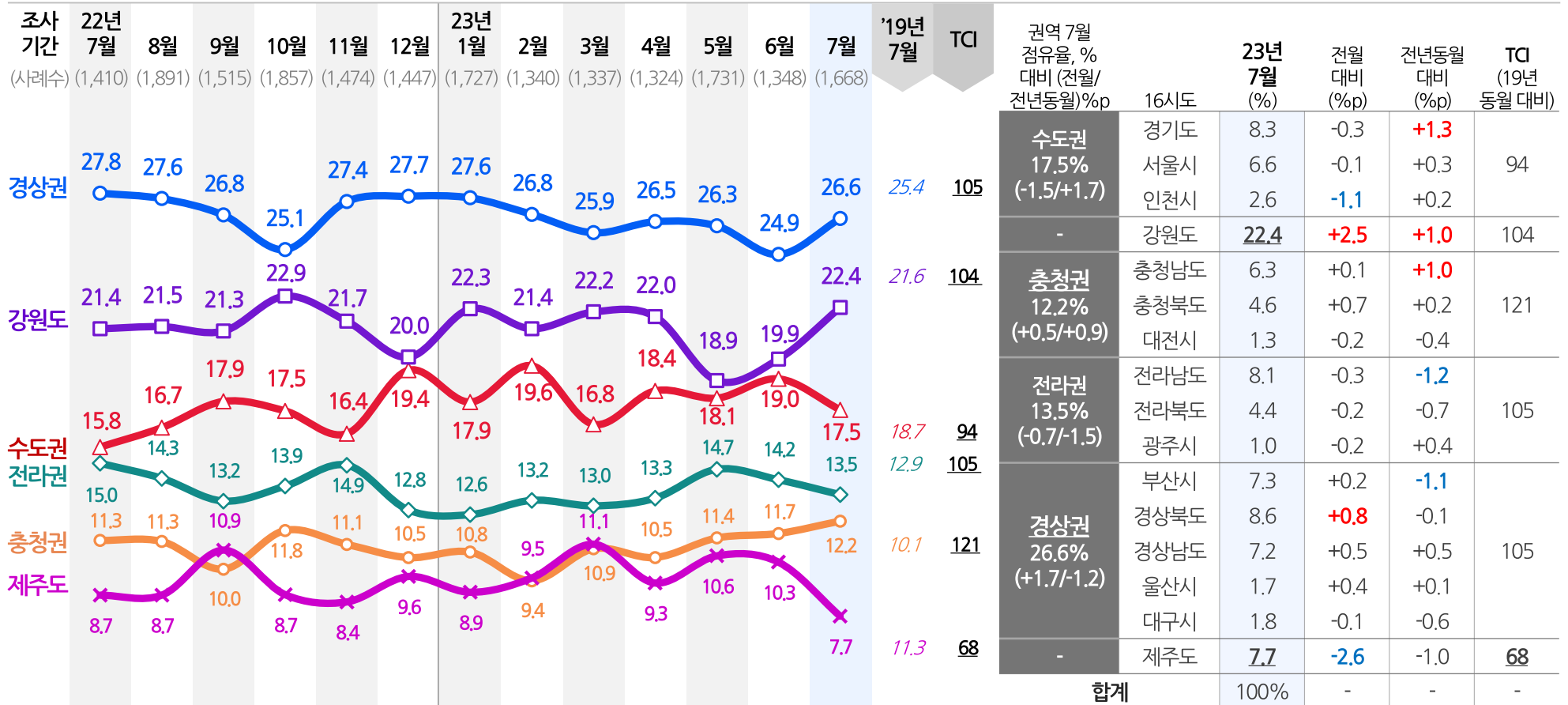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1.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지역

- 당월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경상권(26.6%)’, ‘강원도(22.4%)’, ‘수도권(17.5%)’ 순임.
- ‘경상권’(24.9%→26.6%), ‘강원도’(19.9%→22.4%), ‘충청권’(11.7%→12.2%)의 여행지 점유율은 전월 대비 상승함.
- 전년 동월 대비 여행지 점유율이 상승한 지역은 ‘수도권’(1.7%p), ‘강원도’(1.0%p), ‘충청권’(0.9%p) 지역임.
- TCI는 충청권이 121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도는 68로 크게 낮음.

[단위 : %]



AA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십시오.

*비교%p는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숙박여행 기간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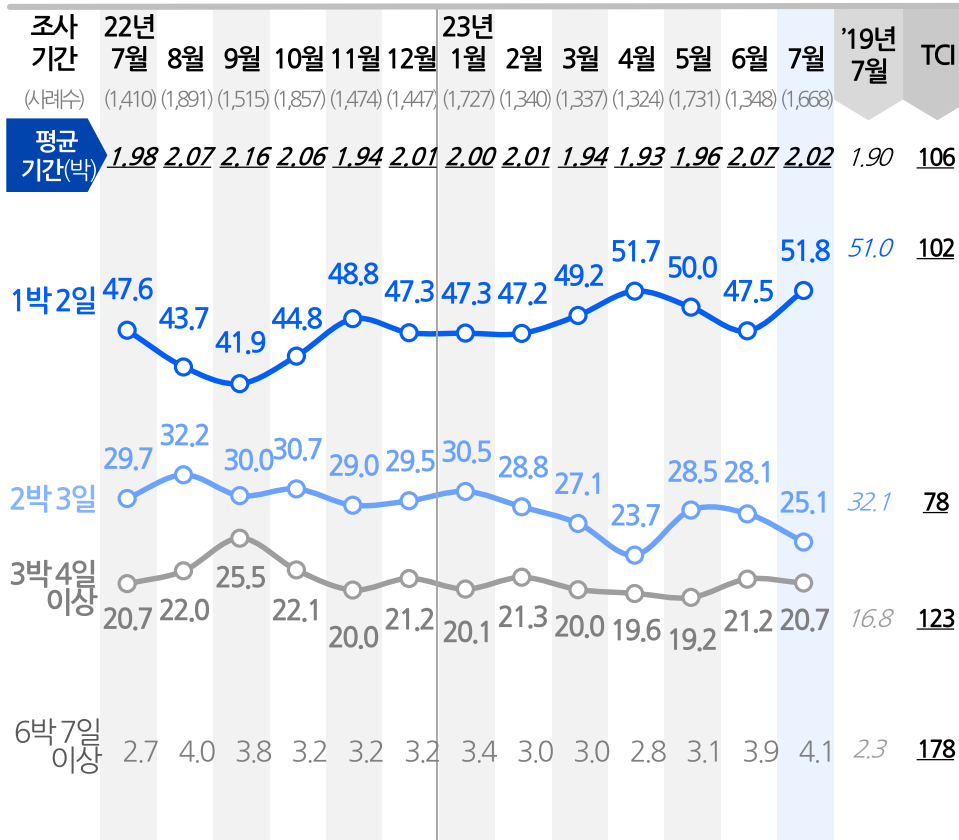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1/40

- 여행 기간은 '단기 여행(1박 2일)'이 과반, 2박 3일이 ¼로 1~2박이 전체의 ¾ 이상이며, 평균은 2.02박이었음.
- 1인당 여행 총 경비는 23만원, 1일당 경비는 7.6만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여행 기간과 총 경비 TCI는 각각 106, 107로 '19년 7월 대비 소폭 높음.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의 경비 상승은 상당한 비용절감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여행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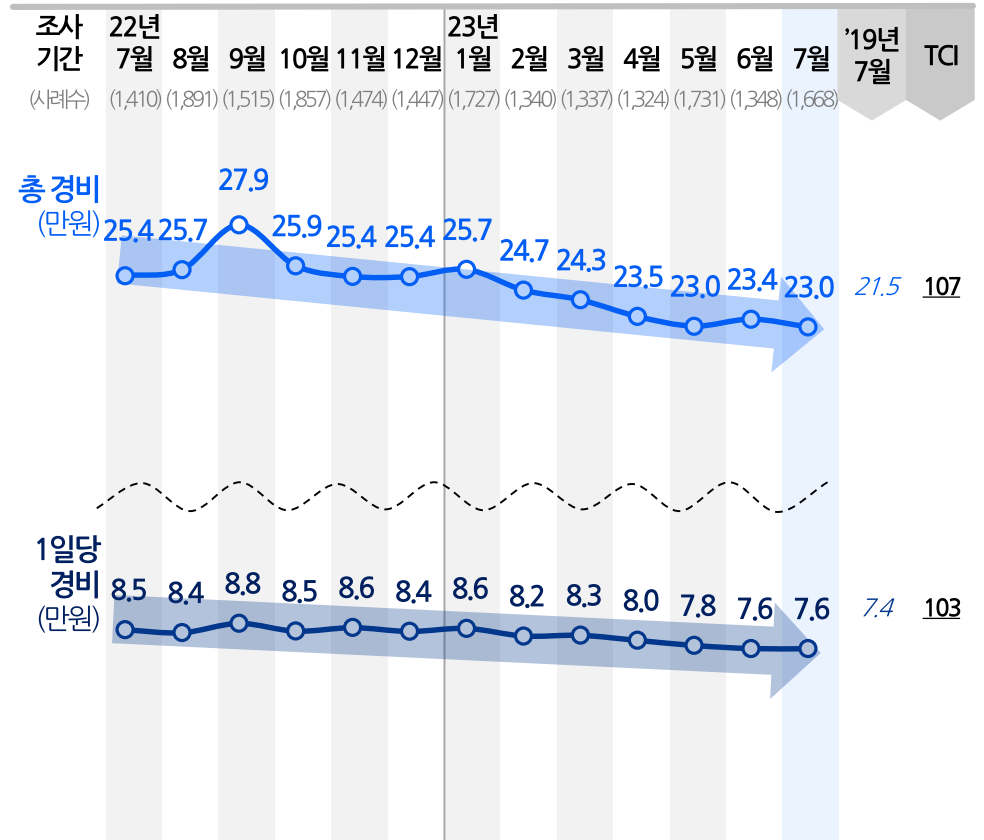
여행 기간

[단위 : %]



여행 비용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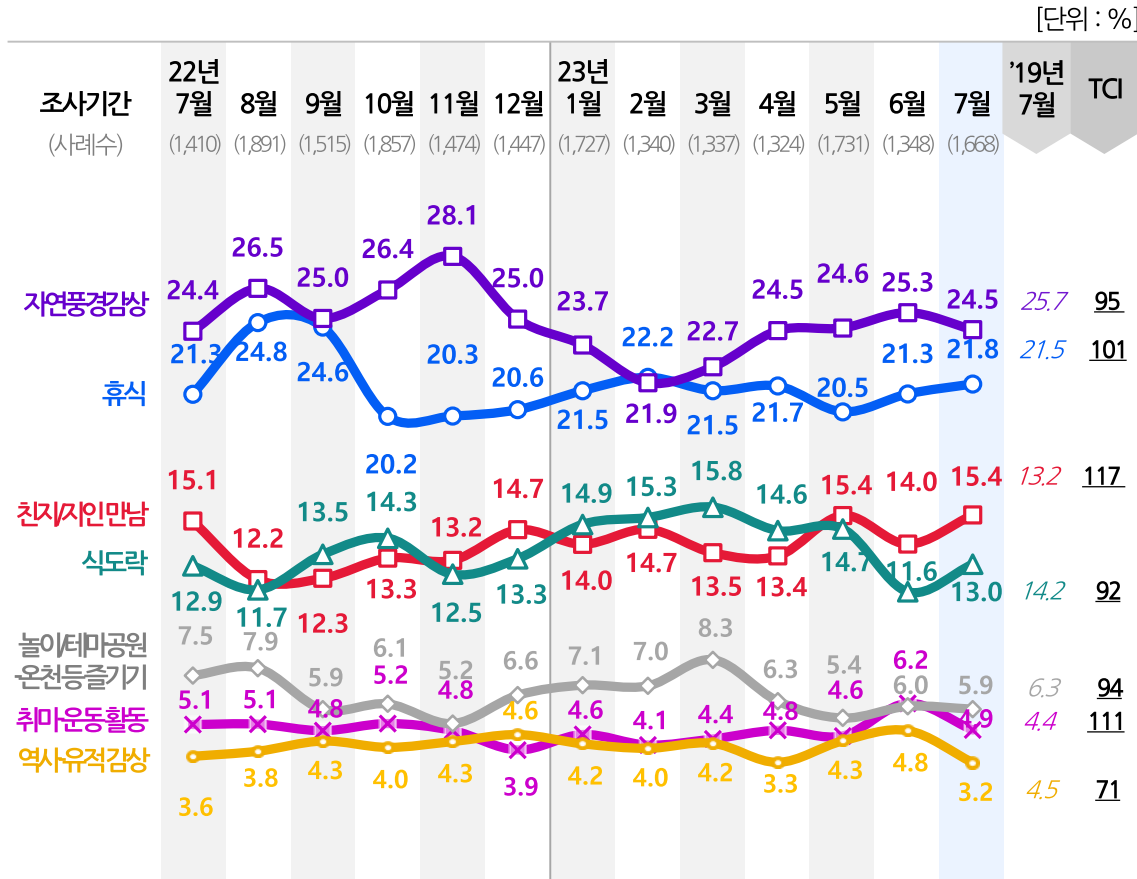


5. 국내 숙박여행 주 활동

II-1. 국내여행 동향

12/40

- 국내여행 주 활동은 '자연 풍경 감상'이 24.5%로 가장 높으며, 이어 '휴식(21.8%)', '친지/지인만남(15.4%)', '식도락'(13.0%) 순임.
- '자연 풍경 감상'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친지/지인만남'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높았음.
- TCI가 가장 높은 활동은 '친지/지인만남(117)'과 '취미-운동 활동(111)'임



▶ 여행지역별 주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

	전체	여행 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668)	(292)	(204)	(444)	(225)	(374)	(129)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4.5	10.6 ▽	25.0	20.3 ▽	25.3	36.5 ▲	33.2 ▲
휴식	21.8	22.5	22.1	19.9	18.7	23.2	28.0
친지/친구/ 친척 만나기	15.4	19.5 ▲	24.0 ▲	18.3	14.7	8.0 ▽	5.4 ▽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3.0	11.3	5.9 ▽	14.4	16.8	13.6	14.7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 즐기기	5.9	7.9	6.4	5.6	4.0	6.9	1.6 ▽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9	5.8	3.9	4.1	5.8	5.1	4.7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3.2	3.1	3.9	5.2 ▲	3.1	1.1 ▽	2.3

AA15-2. 'OO' 여행을 다녀온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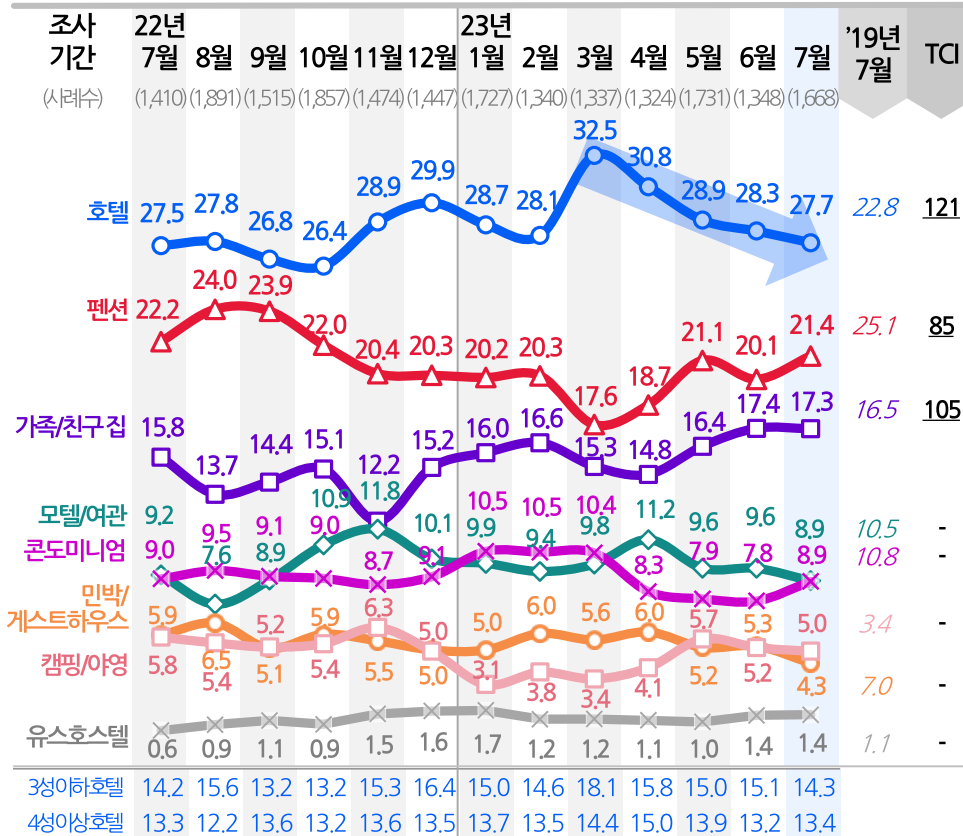
*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6. 국내여행 숙박 장소 및 선택 이유

- 숙박 장소는 ‘호텔(27.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펜션(21.4%)’, ‘가족/친구 집(17.3%)’의 순임.
- '23년 3월 이후 호텔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펜션과 콘도미니엄 이용률은 여름휴가의 효과로 전월 대비 상승함.
- 호텔 TCI는 121로 높으나 이는 코로나 기간 중 호텔 이용률이 급등했기 때문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큼.
- 숙박 업소 선호 이유의 TCI는 ‘숙박비용’이 129로 가장 높았음. 이는 숙박장소 선택에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줌.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호텔의 지속적 하락이 예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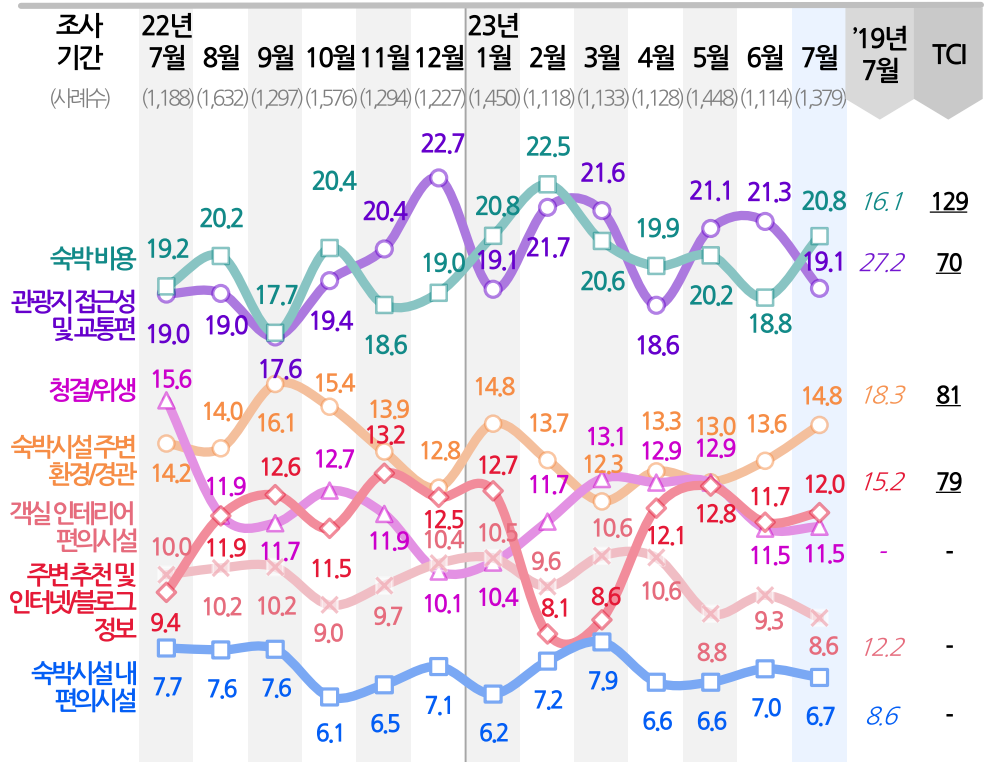
국내여행 숙박행태

[단위 : %]



숙박업소 선호이유

[단위 : %]



* 사례수 1,379명, 가족/친구집제외

AA10. 'OO'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셨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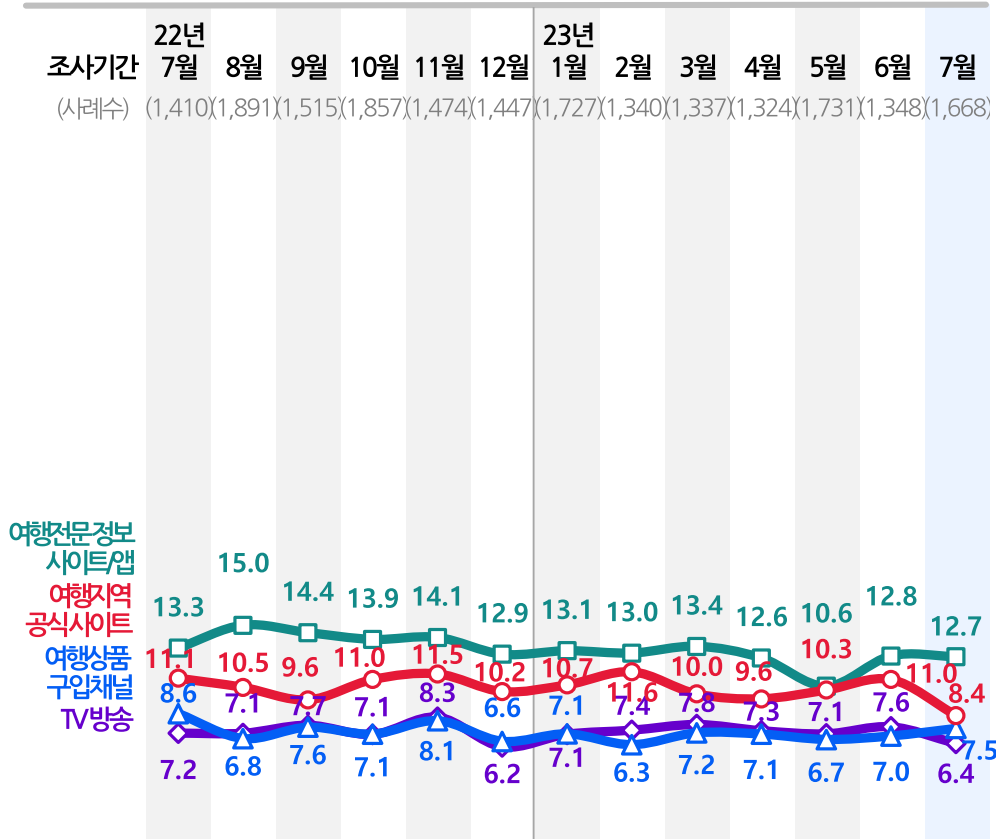
AA11-1. 이용하신 숙박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7. 국내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국내 여행지 정보탐색에 있어서는 ‘전문/공식 정보채널’이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대비 열세가 뚜렷함.
- 상업적이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문/공식 정보채널’ 4종은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세임.
이는 ‘전문/공식 채널’의 쇠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함.
- 반면 소비자 개인 중심인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서는 ‘지인추천’과 ‘블로그’를 중심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상업적인 채널, 진부한 공공채널보다는 소비자 개인의 체험 정보를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여행목적지를 찾는 경향이 대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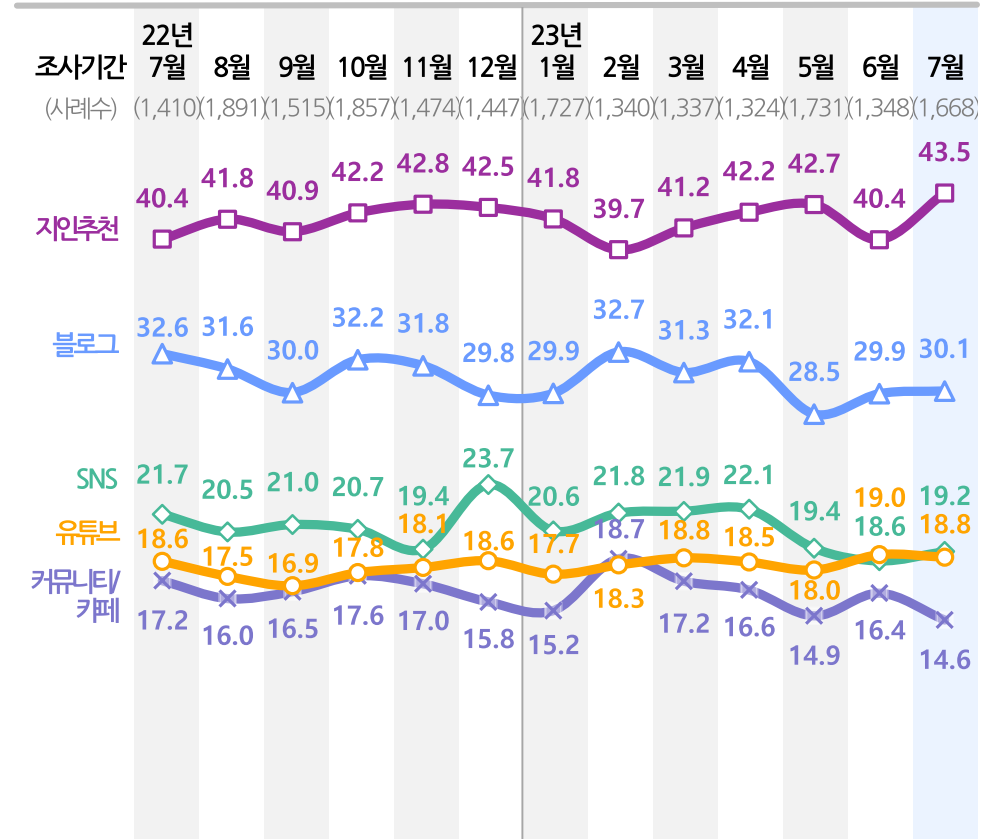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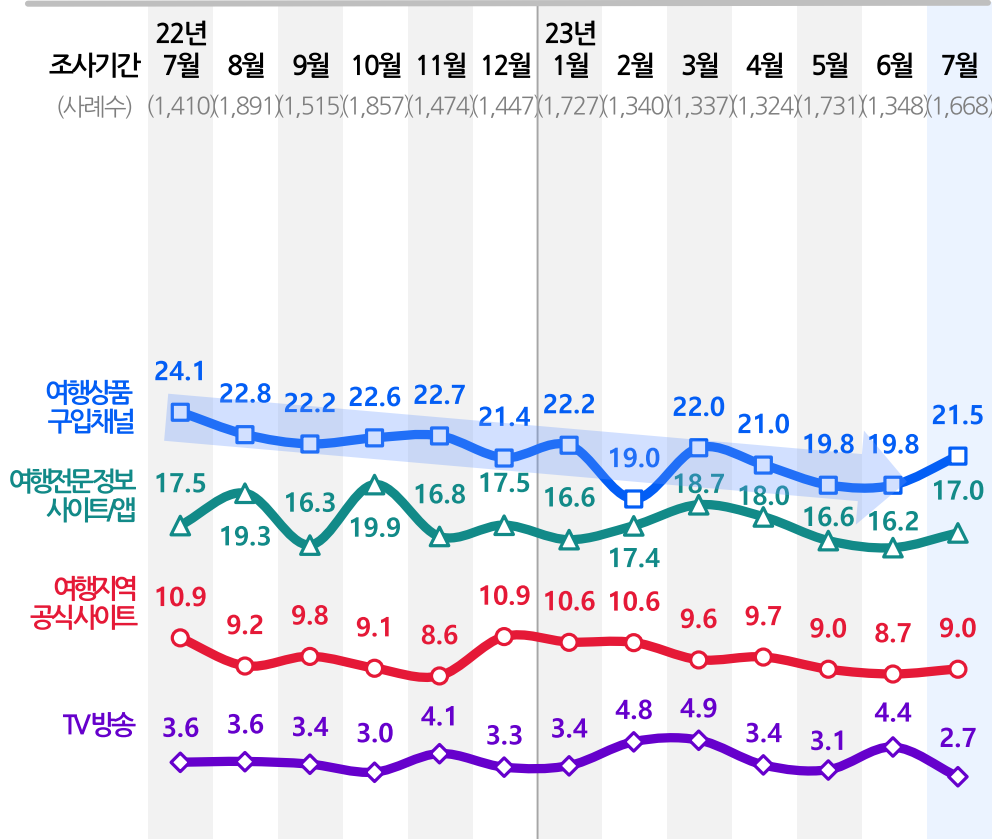
AA2-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결정 시)

8. 국내여행 숙소 정보탐색

- 여행지 내 '숙소' 정보탐색에 있어서도 여행지 만큼은 아니지만 '전문/공식 정보채널'의 부진이 뚜렷함. 특히 '여행상품 구입채널'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은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지인추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행선지'나 '숙소' 모두 '지인추천'이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소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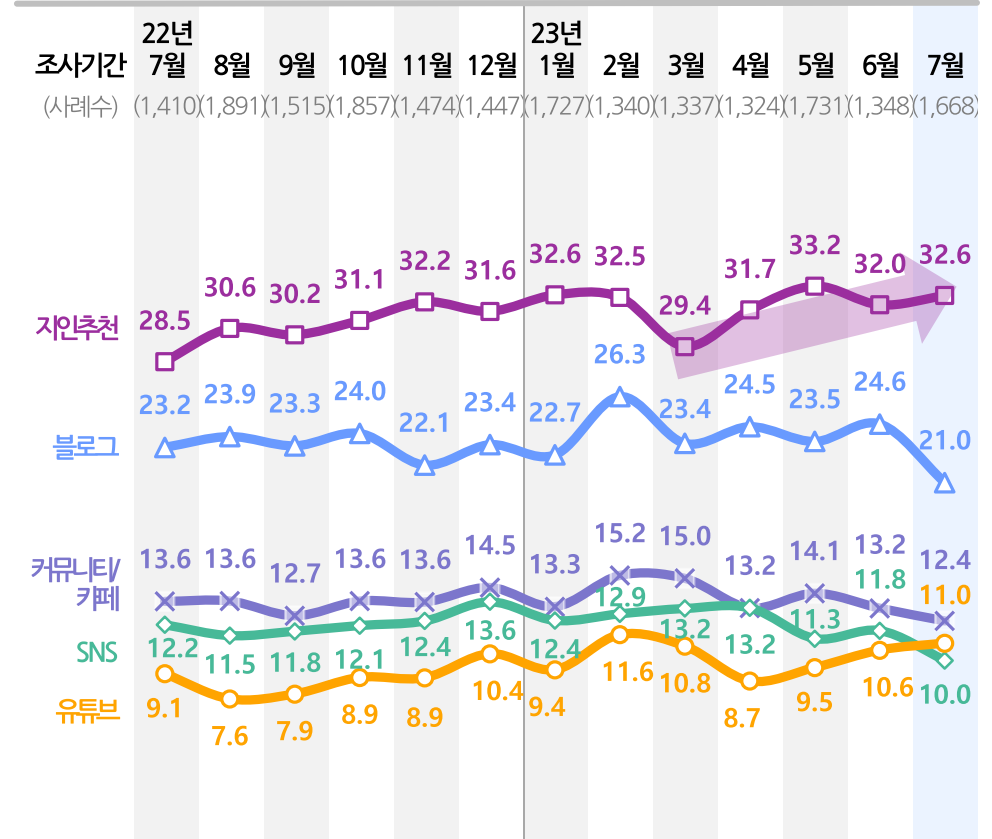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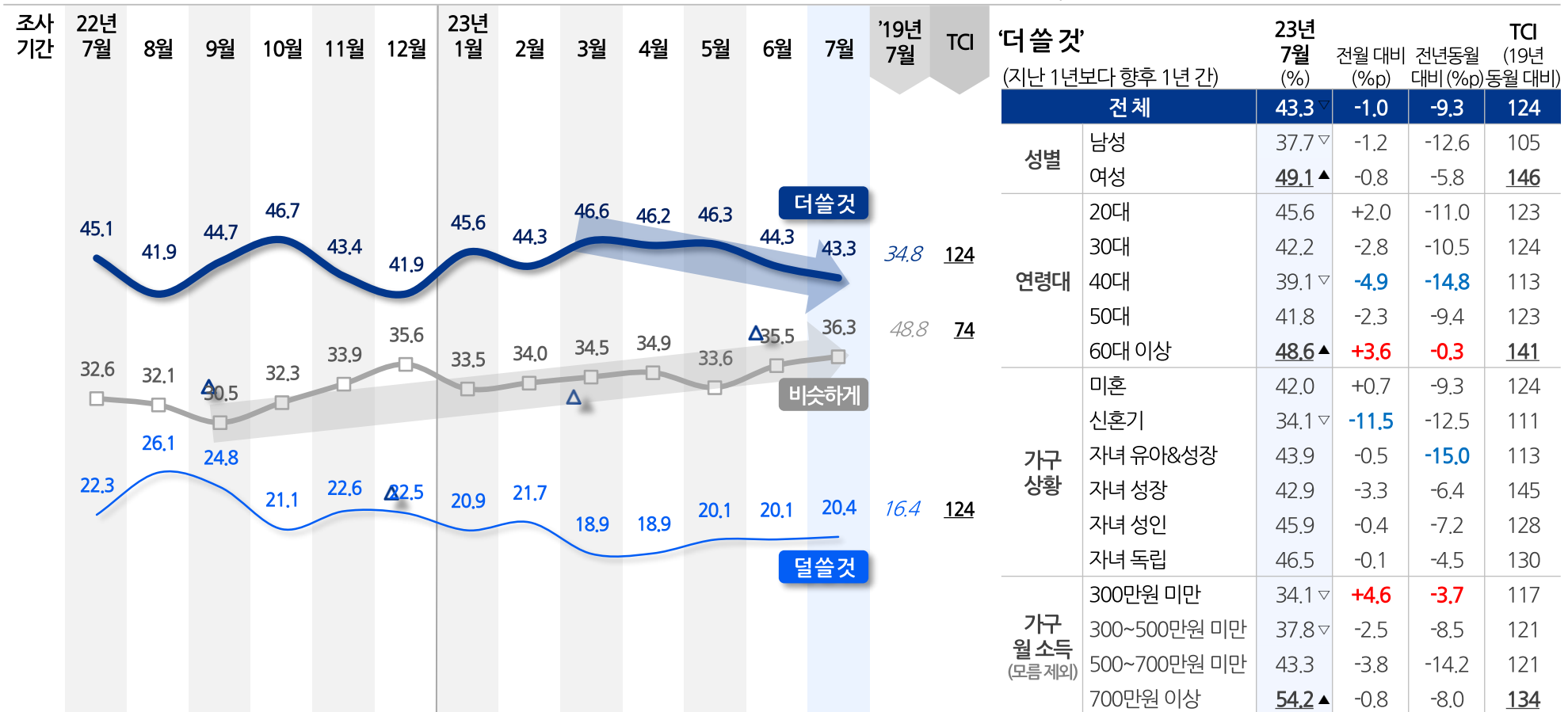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향후 1년간 지난 1년에 비해 관광·여행비를 ‘더 쓸 것’이란 반응은 감소하는 추세, ‘비슷하게’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개인의 의지 보다는 급속한 물가상승이라는 환경변화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더 쓸 것’의 TCI는 124로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7월 34.8%) 대비 크게 높은 상태이나, ‘더 쓸 것’ 보다는 ‘더 쓸 수 밖에 없을 것’의 의미임.
- ‘덜 쓸 것’ 또한 TCI 124로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7월 16.4%) 대비 다소 높은 상태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덜 쓸 것’의 의미로 보임.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60대 이상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지출 증가예상이 높으며, TCI도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3. 국내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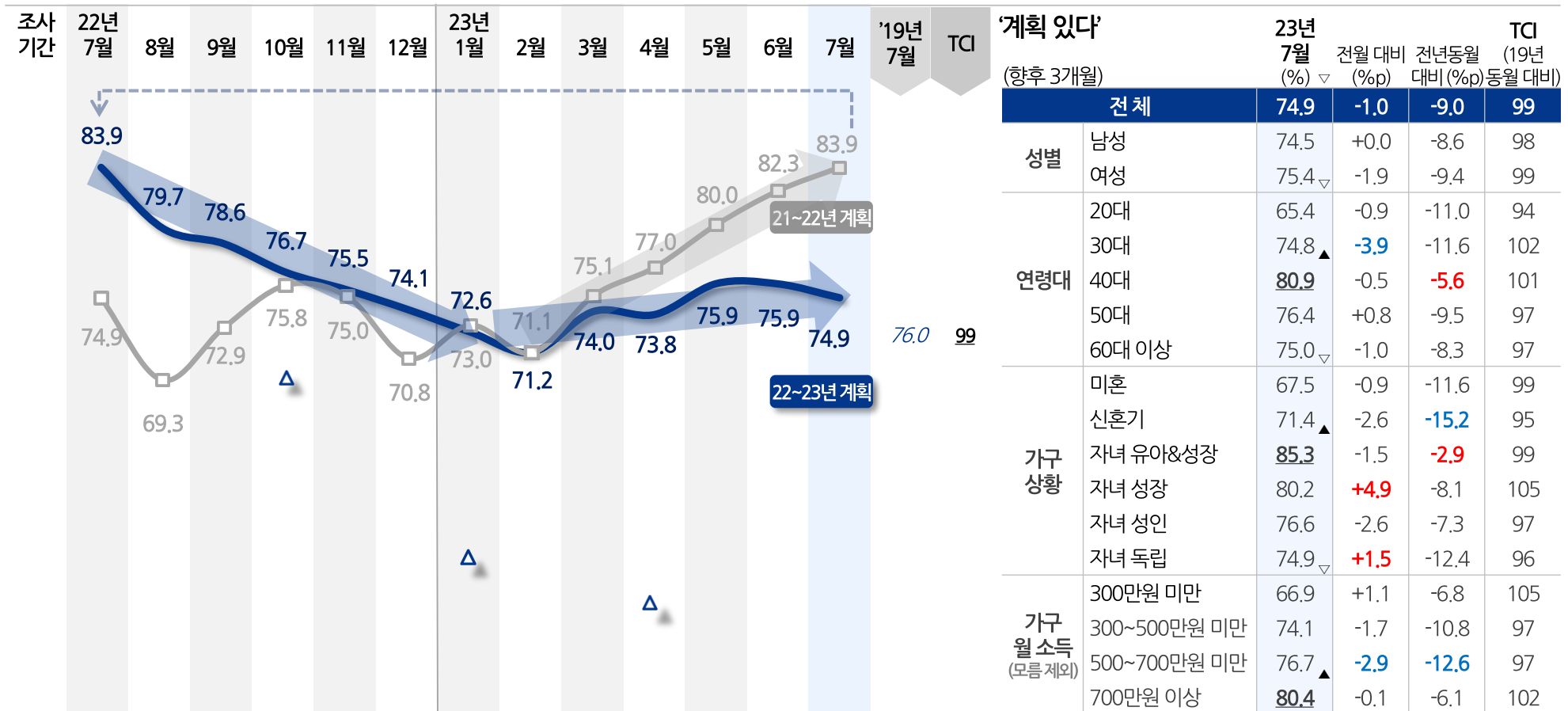
2.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 (향후 3개월)

II-2. 국내여행 계획

18/40

- 3개월 이내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22년 초 급등하여 '22년 7월 83.9%로 비정상 고점에 이른 후 '23년 2월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후 미세한 증가 추세로 돌아섬.
- TCI는 99로 코로나 이전 동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구특성별로는 △40대 △자녀 유아&성장기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1,000명)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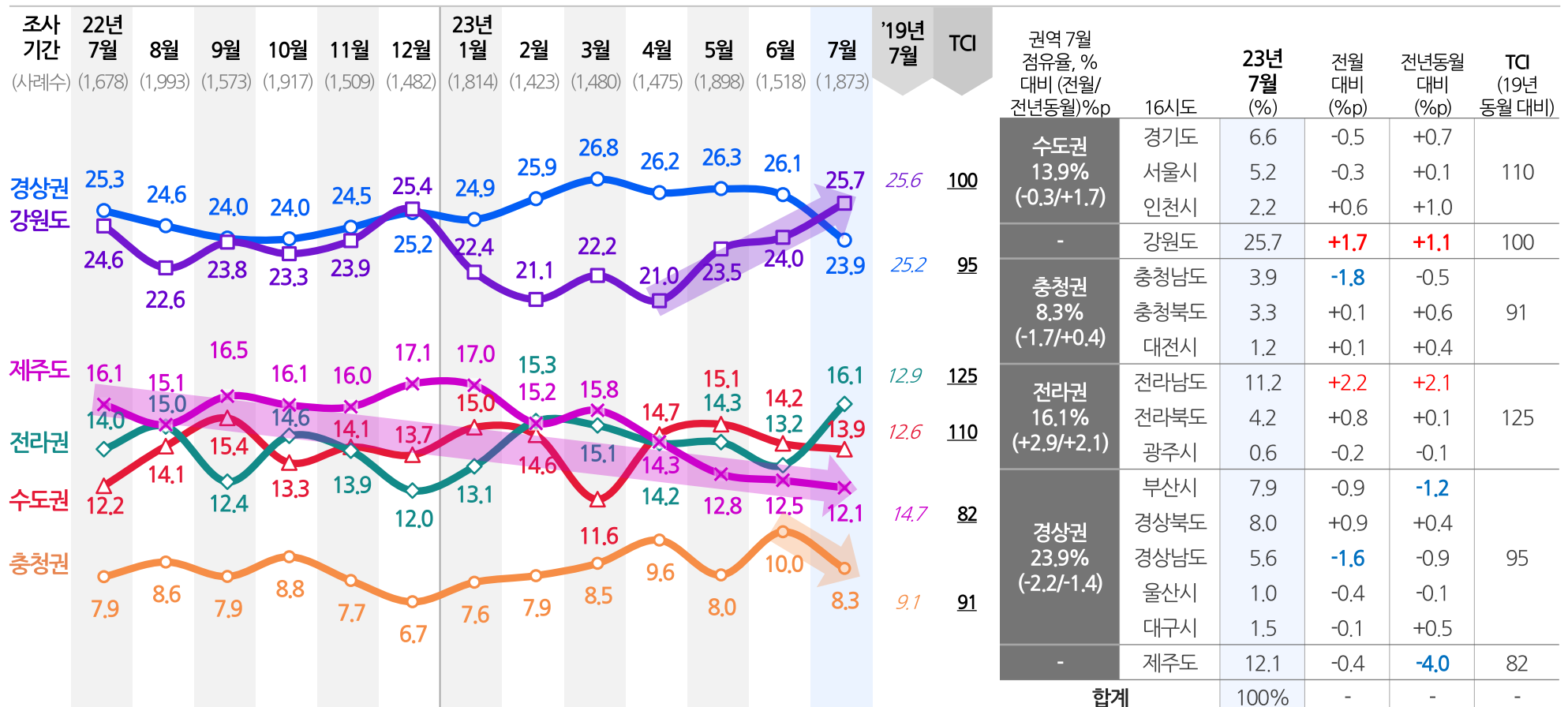
3.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

II -2. 국내여행 계획

19/40

- 국내여행 예정 지역은 '강원도(25.7%)'와 '경상권(23.9%)'이 높고, 이어 '전라권(16.1%)', '수도권(13.9%)', '제주도(12.1%)' 순임.
'강원도'는 경상권을 반짝 앞선 전년 12월 이후 7개월만에 신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경상권을 다시 앞섬.
- 전년 동월 대비 제주도는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해외여행 재개와 고물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여행 예정지의 TCI는 전라권이 125로 가장 높고, 수도권 110, 강원도 100순이며, 제주도는 82에 불과함.
- 제주도 예정률은 코로나 전/전년 동월/전월 대비 모두 낮아져,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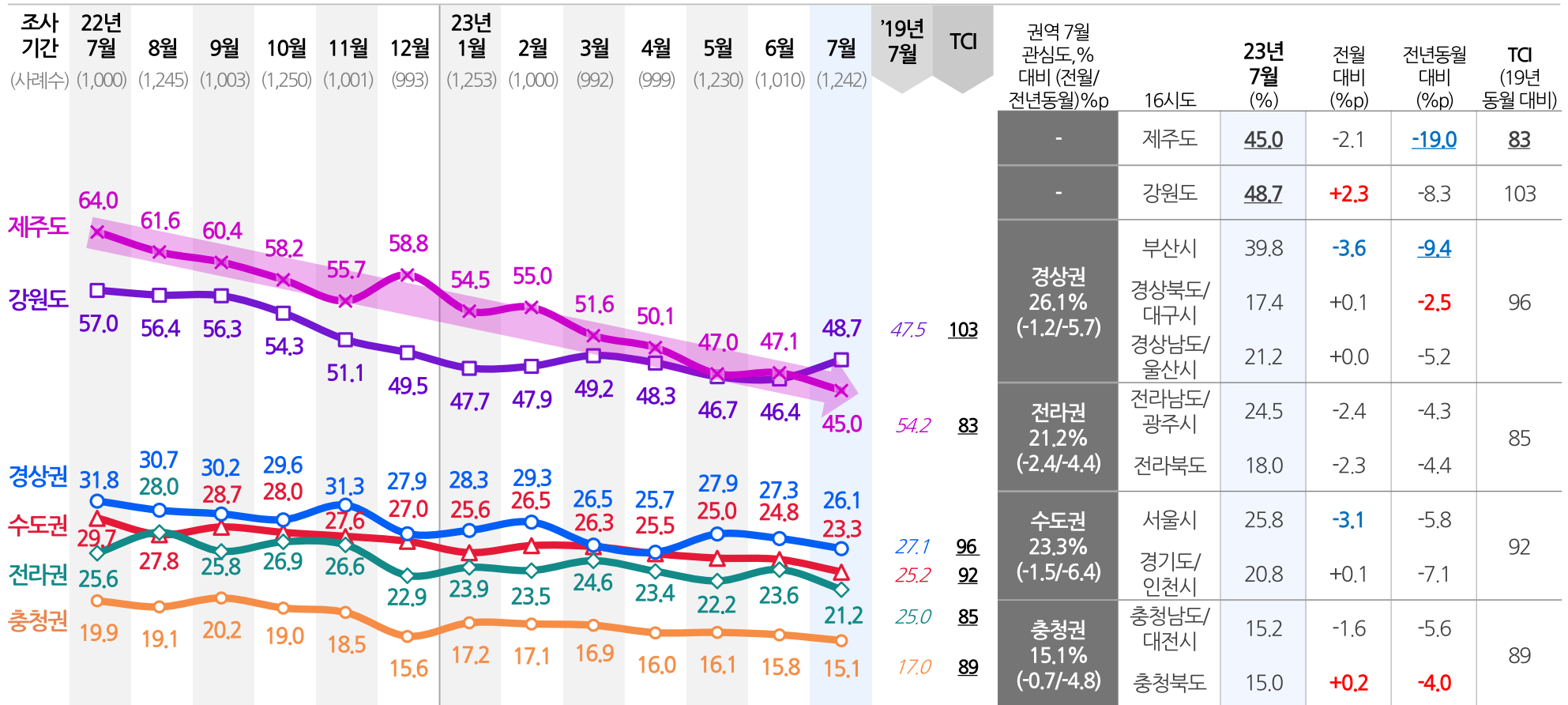
A2-1&2.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여행지 관심도

- 지난 1년 간 국내여행 지역 관심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해외여행의 재개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제주도는 7월 기준으로 '22년 64.0%로 급등했다가 '23년 45.0%로 급하락해 강원도 밑으로 떨어짐.
- 강원도 역시 하락세이나 당월 48.7%로 제주도를 제치고 선두 자리를 차지했음.
- 제주도의 TCI는 83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중국의 해외여행 허용으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함.

[단위 : Top2 box%(매우 많아졌다+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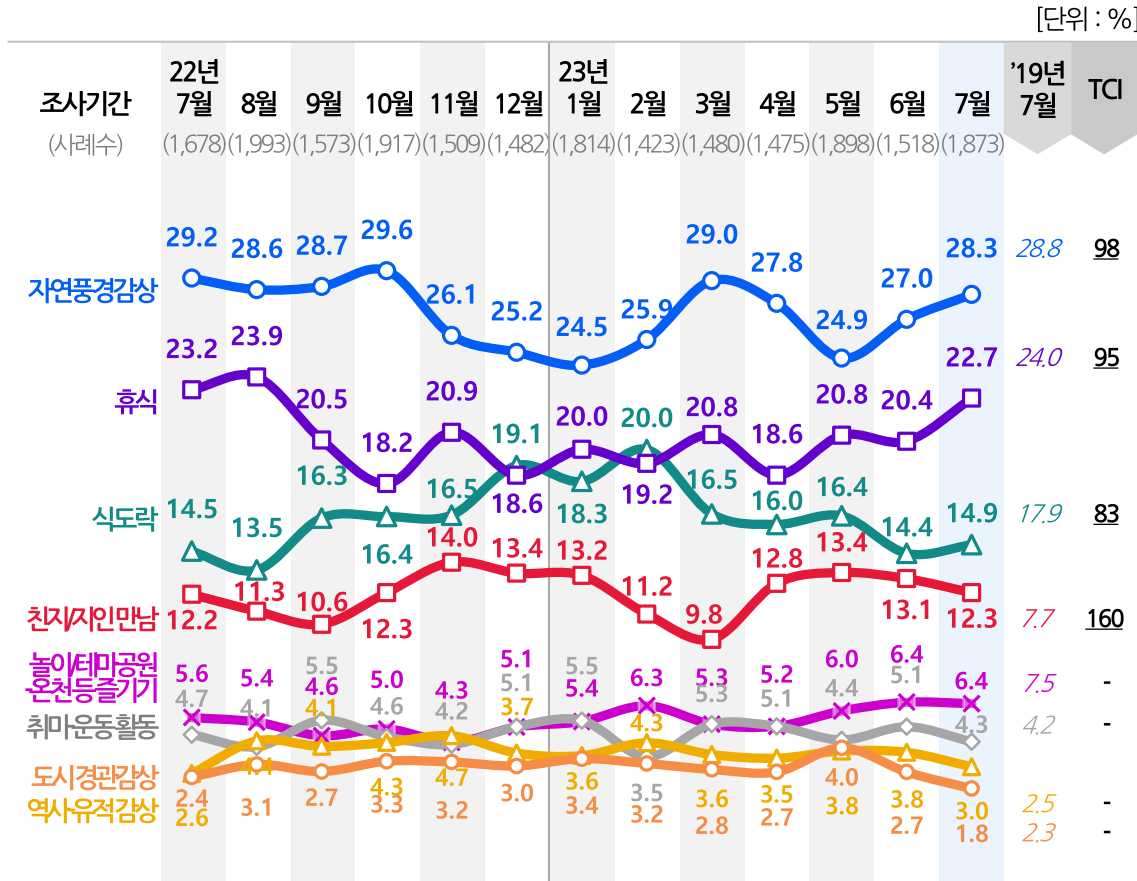


SQ2-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5점 척도)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시도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국내 숙박여행 계획 활동

- 계획 중인 여행의 주 목적은 ‘자연 풍경 감상(28.3%)’, ‘휴식(22.7%)’, ‘식도락(14.9%)’ 등의 순임.
- ‘자연 풍경 감상’과 ‘휴식’은 강원도에서, ‘식도락’은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계획 활동 TCI는 ‘친지/지인만남’이 160으로 가장 높았음. 이는 코로나 기간 중 소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 여행지역별 주 계획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

	전체	여행 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873)	(261)	(155)	(448)	(302)	(481)	(227)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8.3	9.9 ▽	22.6	24.8	29.9	40.0 ▲	33.4
휴식	22.7	23.8	25.7	18.6 ▽	17.7 ▽	26.5 ▲	26.5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4.9	9.6 ▽	11.6	16.3	23.9 ▲	12.9	12.8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2.3	20.0 ▲	23.3 ▲	16.4 ▲	11.3	5.4 ▽	3.9 ▽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 즐기기	6.4	12.7 ▲	5.2	5.6	3.7 ▽	5.2	7.5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3	1.5 ▽	4.5	4.0	4.3	5.0	6.6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3.0	3.8	2.6	5.1 ▲	2.3	1.3 ▽	2.6
도시 경관 감상 (건축물, 거리 등)	1.8	2.3	0.6	3.8 ▲	1.7	0.2 ▽	1.8

A4-3.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6. 국내여행 숙박 계획 및 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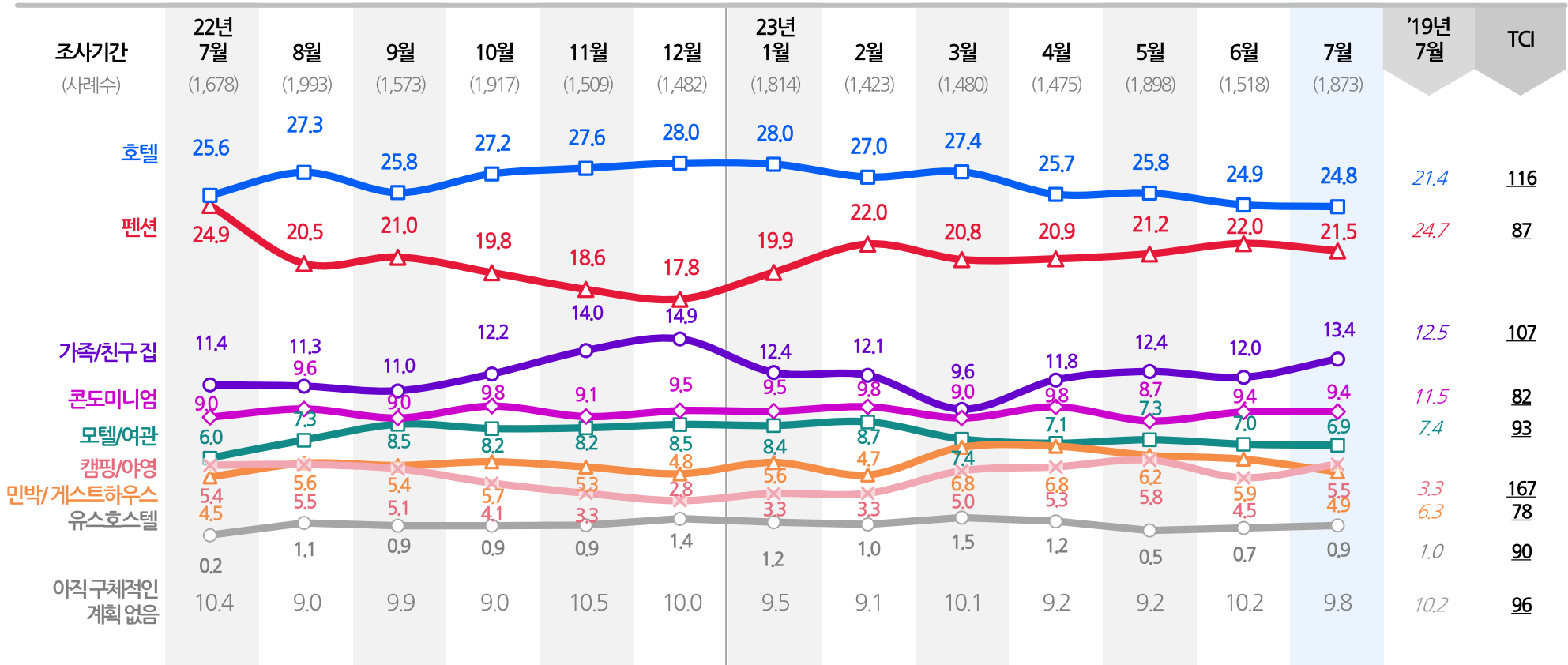
II-2. 국내여행 계획

22/40

- 숙박 예정 장소는 '호텔(24.8%)', '펜션(21.5%)', '가족/친구 집(13.4%)' 순임.
- 숙박 예정 장소 TCI는 '캠핑/야영'이 167로 코로나 전보다 크게 높음.
- '호텔(116)'도 높으나 코로나 기간 중의 과수요가 아직 덜 빠진 상태이며, 비용 문제에 부딪히면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큼.

국내여행 숙박행태

[단위 : %]



A10. 여행지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7. 국내여행 정보채널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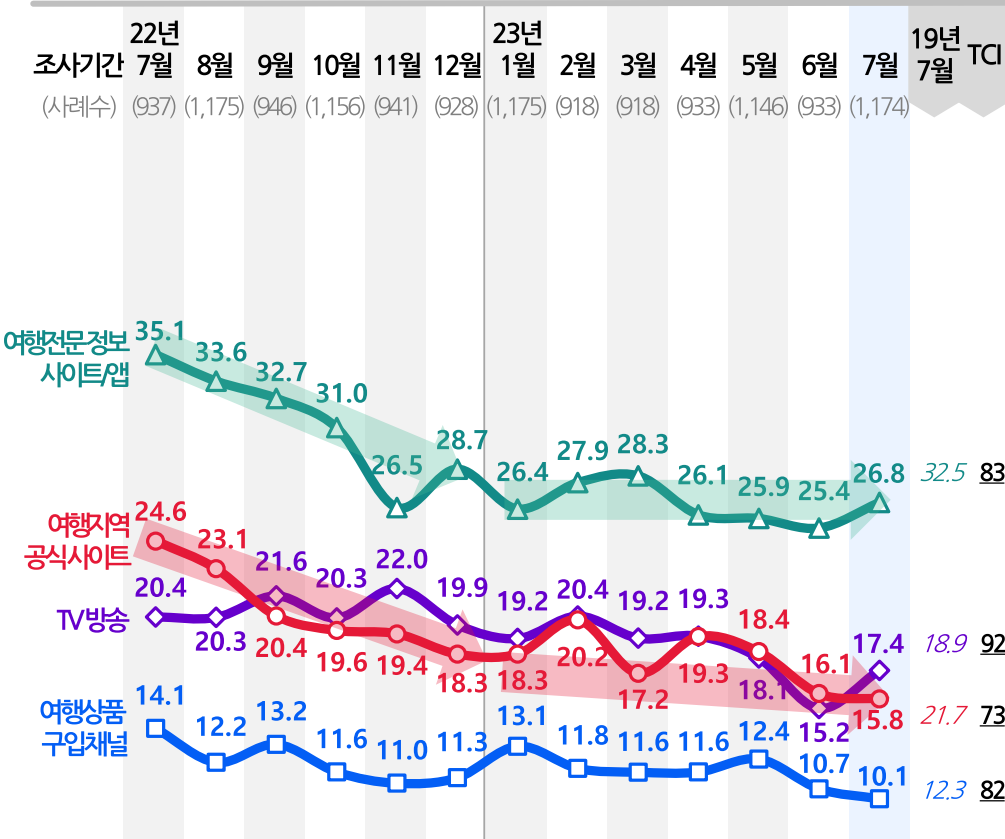
II-2. 국내여행 계획

23/40

- 정보채널 이용 의향(이전 대비 '늘어날 것 %')은 전반적으로 '22년 하반기에 하락, '23년 상반기에 보합세를 보였음.
국내여행시 이용률만큼은 아니지만 여행기업과 지자체 '전문/공식' 채널의 하락세가 있음.
- 대표적 '전문/공식' 채널인 여행기업의 사이트/앱과 지역 공식사이트의 현재 수준이 일년전의 고점으로부터 크게 낮아져,
코로나 이전 보다도 낮아졌다는 것(TCI는 각각 83, 73)은 특히 주목할 만함. 더 이상 내려가면 심각한 위기임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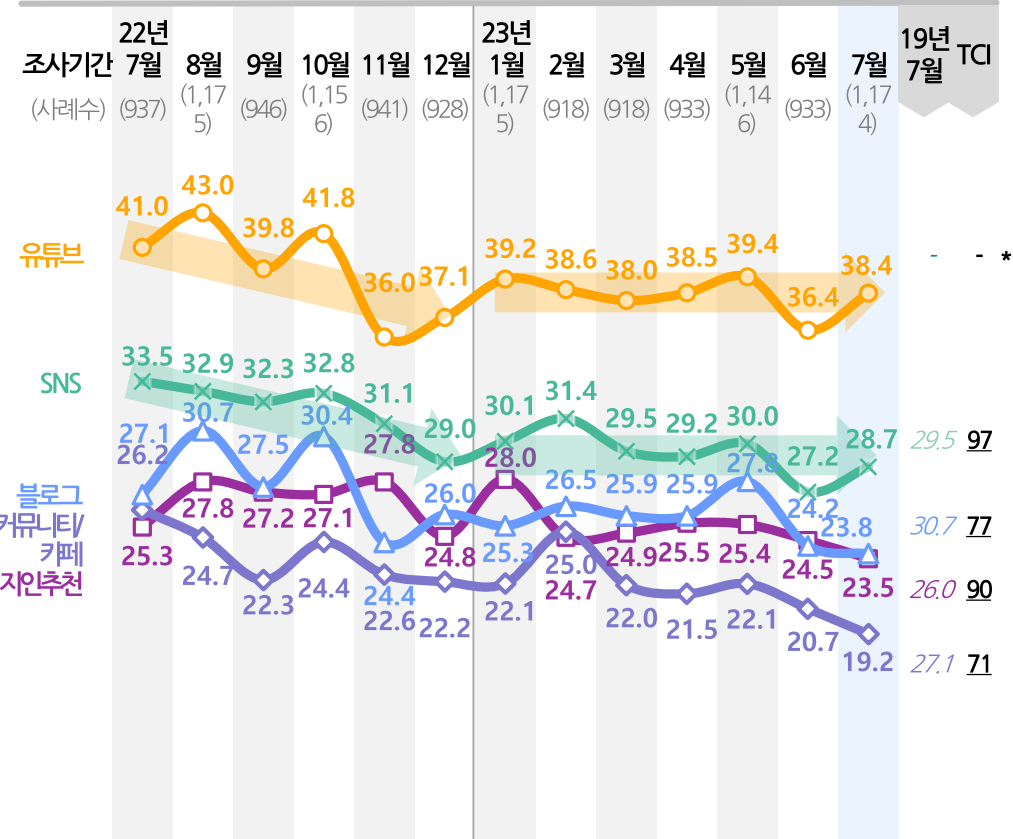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이용 의향

[단위: 늘어날 것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이용 의향

[단위: 늘어날 것 %]



SQ2-3. 향후에 국내여행을 간다면, OOO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이전에 비해 어떻 것겠습니까?

* '20년부터 조사되어 '19년 자료 없어 TCI 산출 불가.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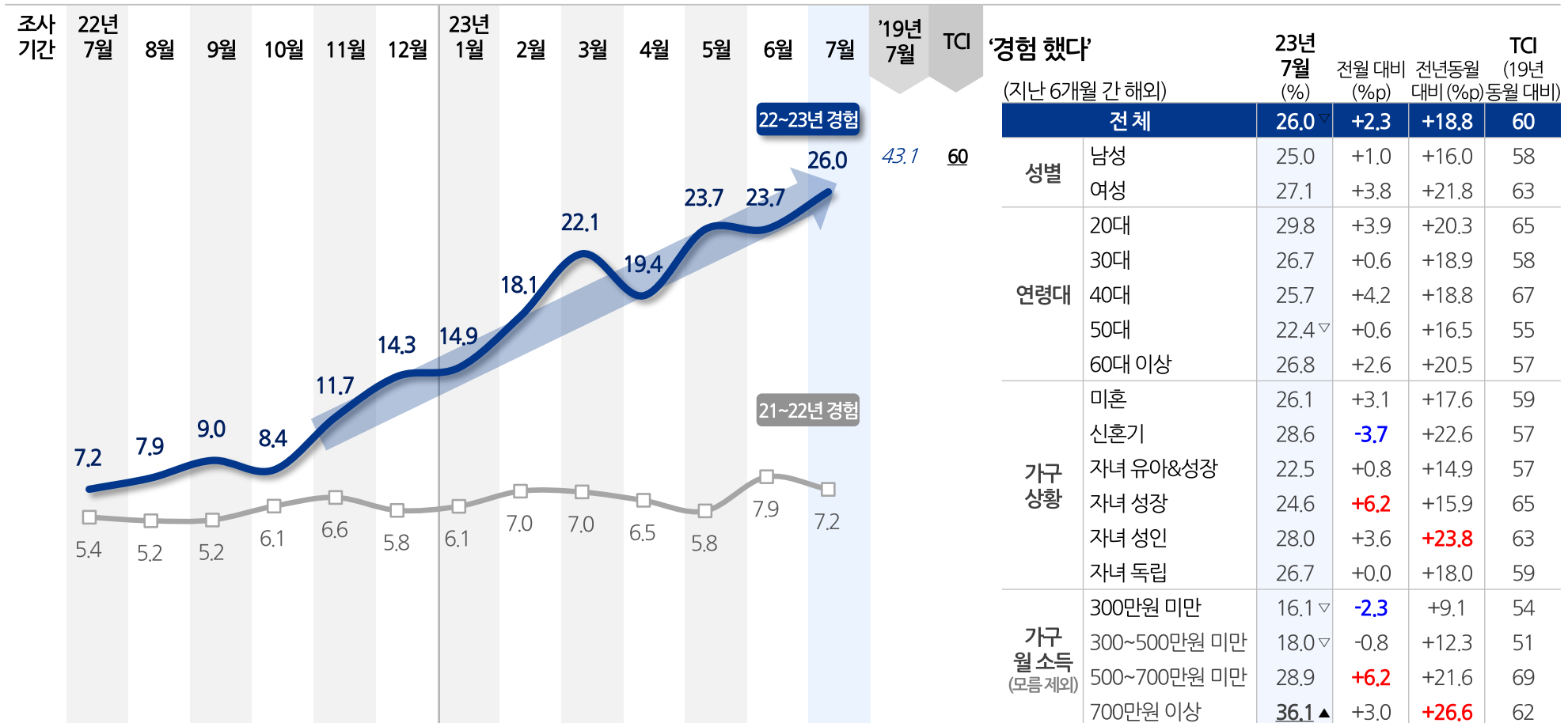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경험률 (지난6개월)

- 지난 6개월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22년 11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3년 7월 26.0%로 올랐음.
- 하지만 해외여행 경험률의 7월 TCI는 60으로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7월 43.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회복에는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가구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경험률이 가장 높아, 고소득자들이 더 적극적임을 보여줌.

[단위: %]



※ 조사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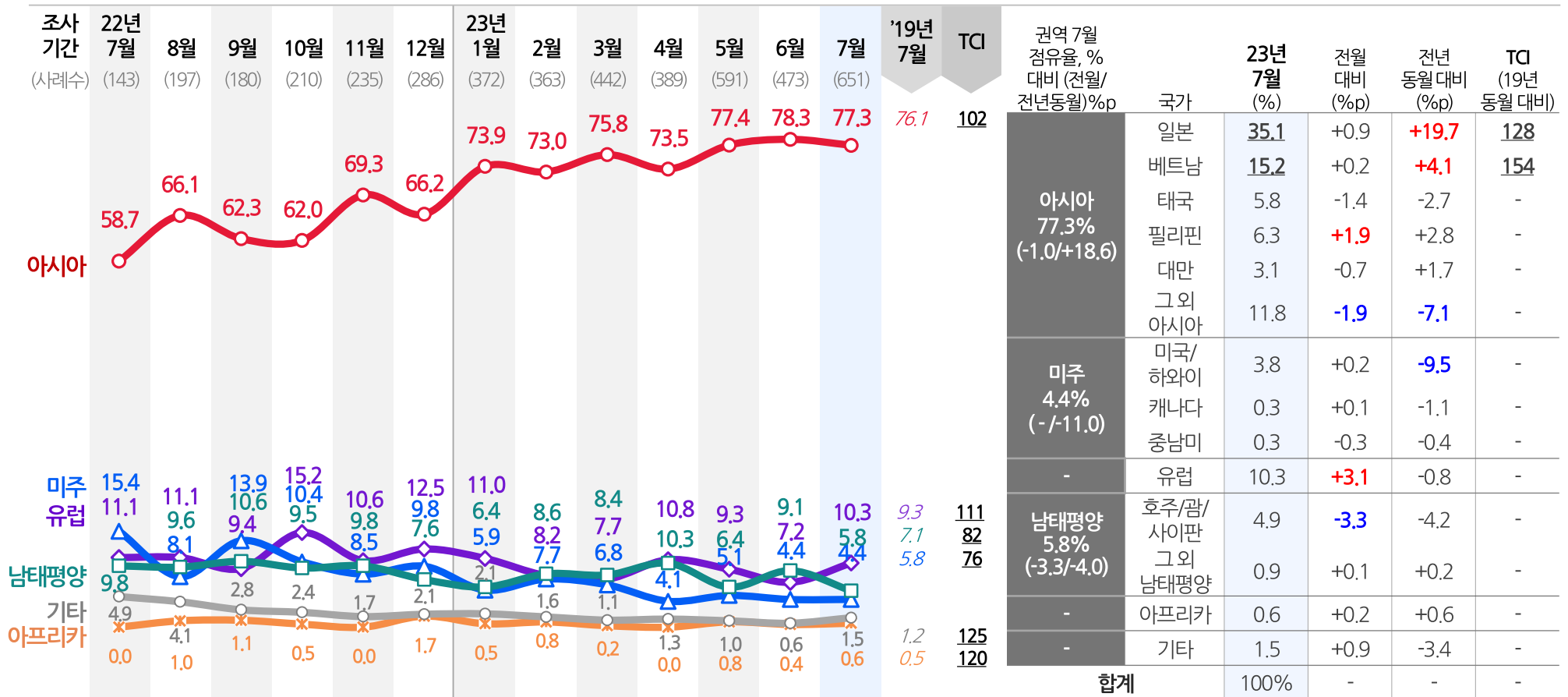
2. 해외여행 지역 (지난 6개월)

III-1. 해외여행 동향

26/40

- 해외여행지 중 아시아의 점유율은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일본(35.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베트남(15.2%)임.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TCI는 베트남이 1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일본(128)임.
- '19년 7월 No Japan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일본의 TCI는 다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단위: %]



BB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여행하신 지역을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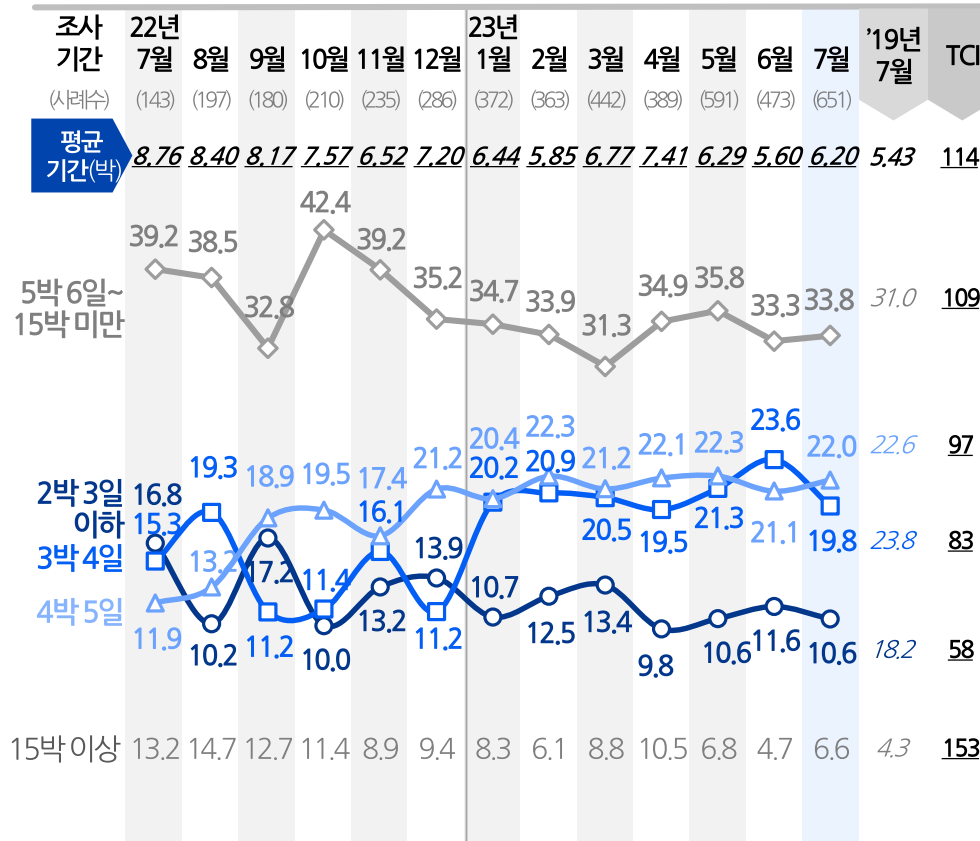
*비교%p는상하위 2개에대해색갈로표시함

3. 해외여행 기간 및 비용

- 지난 6개월 간 다녀온 해외여행 평균기간은 5.43박에, 총 비용 183.4만원, 1일당 25.5만원을 지출했음.
- 여행기간, 지출비용의 감소세가 분명함. 1년 전인 '22년 7월과 비교하면 여행기간은 8.76박에서 5.43박으로, 총 비용은 221.8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감소했음.
- 근거리(아시아, 특히 일본, 단기(4박 이하, 52.4%) 여행의 증가가 원인이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아직도 높음.
- 주요 지표의 TCI는 여행기간 114, 여행 총 경비 135, 1일당 경비 121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길고 비싼 여행을 하고 있음.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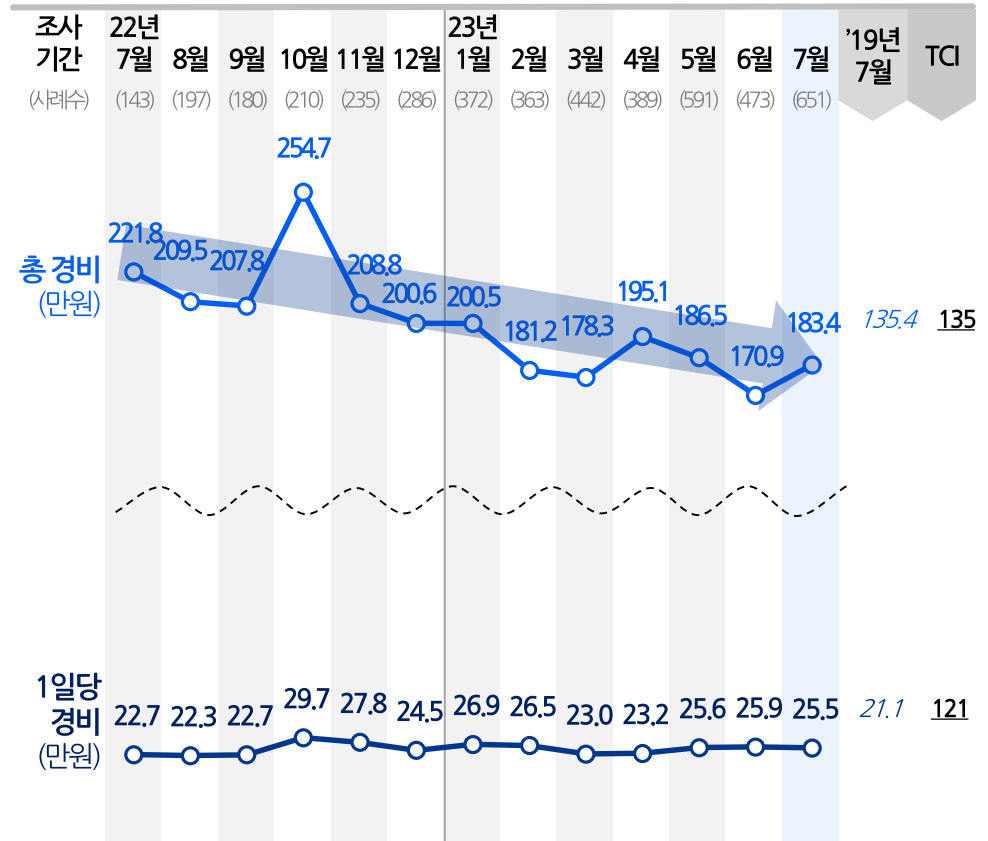
[단위 : %]



BB5-2. 다녀온 'OO'여행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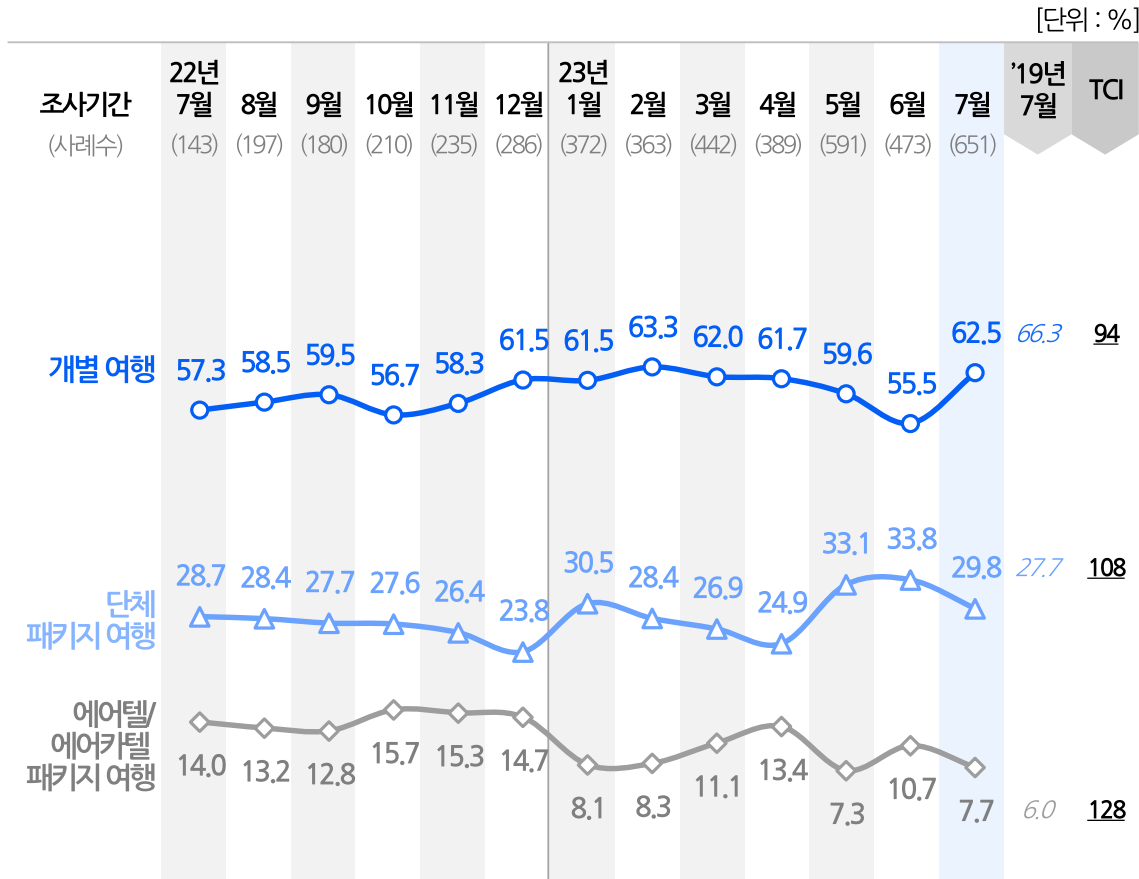
[단위 : 만원]



BB16. 'OO' 여행에서 각 부분들을 위해 대략 얼마정도 지출하셨습니다가?

4. 해외여행 형태

-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여행(FIT)'이 62.5%, '단체 패키지'는 29.8%,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7.7%였음.
- 개별여행 60%, 단체 패키지 30%, 에어텔 10% 전후의 점유율 추이임.
- '개별 여행'은 아시아,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럽, '에어텔/에어카텔'은 남태평양 여행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여행지역별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651)	(503)	(29)	(67)	(38)	(4)
개별 여행	62.5	65.4▲	68.9	46.2▽	55.4	50.0
단체 패키지 여행	29.8	27.2▽	27.6	47.8▲	26.2	50.0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7.7	7.4	3.5	6.0	18.4▲	0.0

BB8. 'OO'여행은 어떤 형태로 가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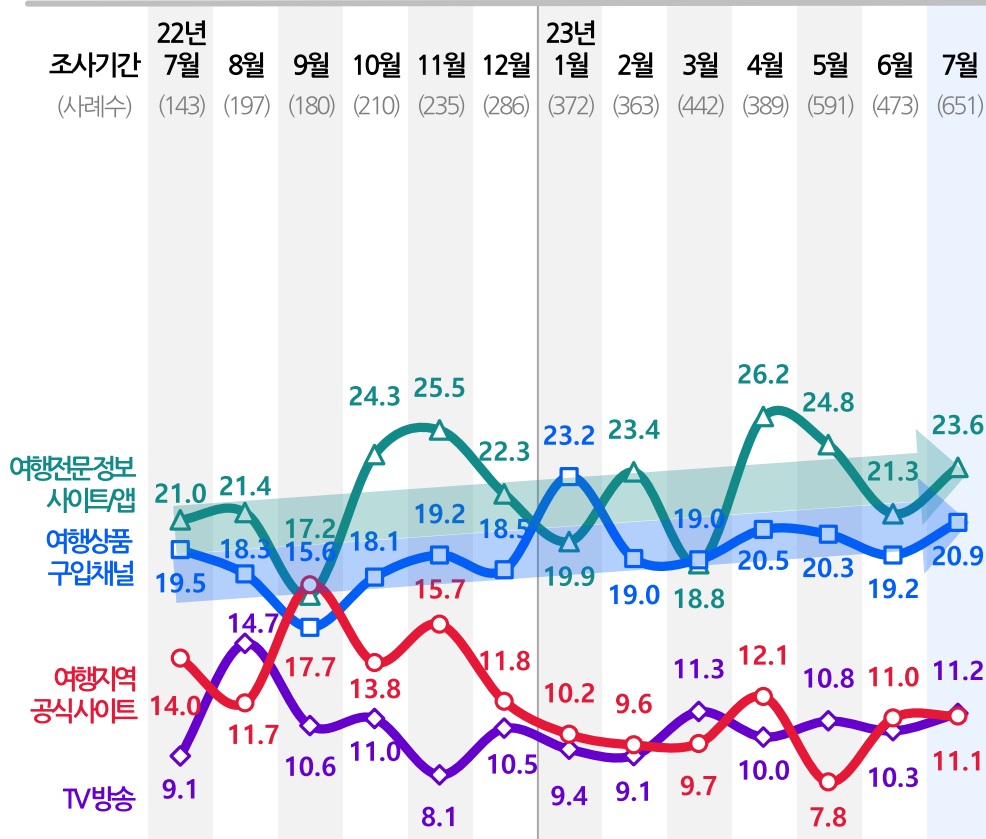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5. 해외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해외여행지 정보 탐색 시 ‘전문/공식 정보채널’ 보다는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내여행과는 큰 차이가 있음.
- ‘전문/공식 정보채널’에서는 ‘여행지역 공식사이트’가 ‘TV 방송’과 함께 하위에 위치한 반면, ‘여행상품 구입채널’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은 지난 1년간 미약한 상승세임. 상업적 채널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음.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서는 ‘블로그’와 ‘지인추천’이 지난 1년간 기복이 심한 가운데 상승세를 보여 TOP2 자리를 지켰음(각각 35.9%,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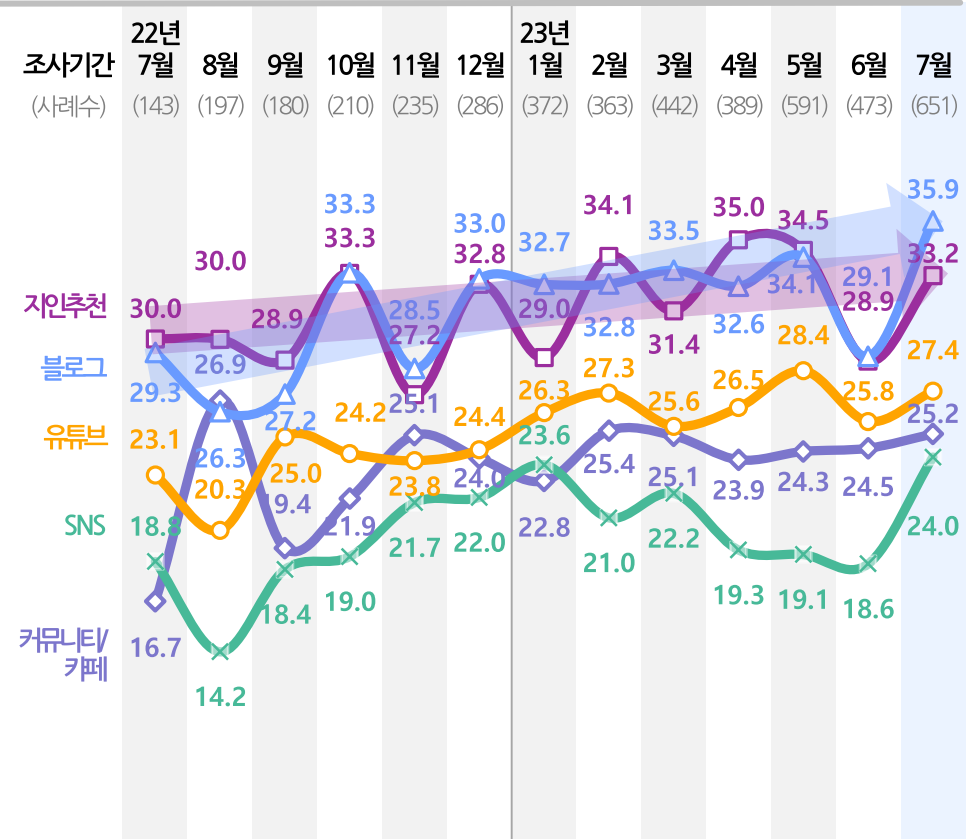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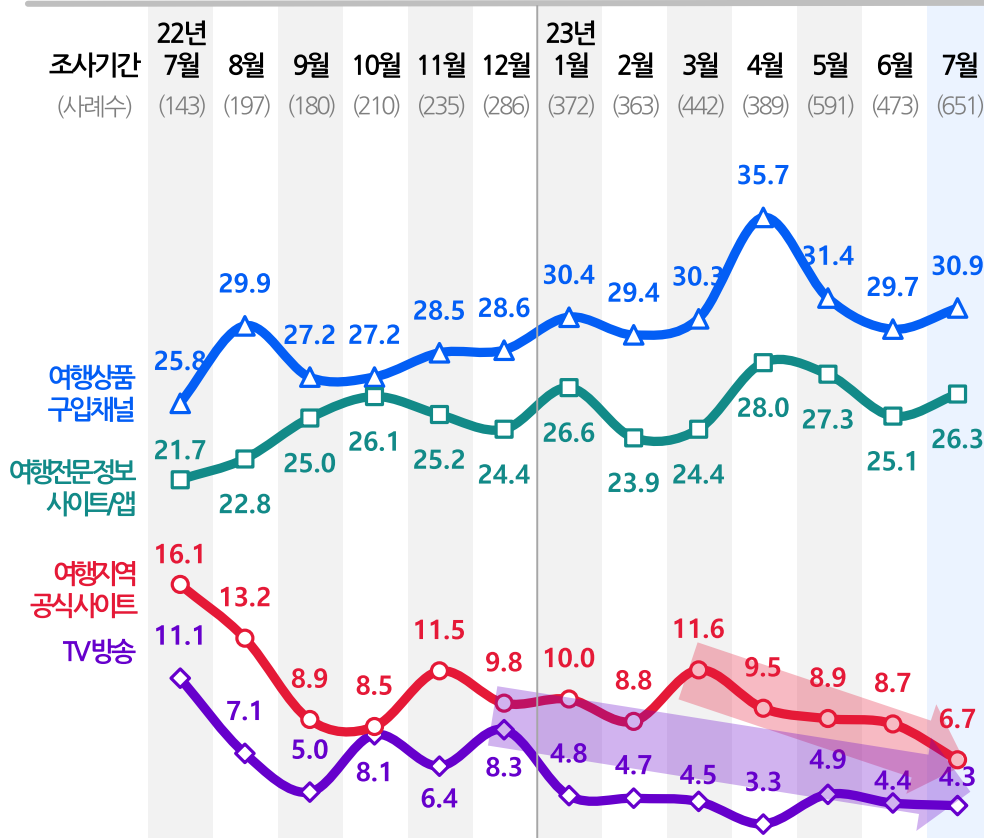


6.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시 '여행상품 구입채널(30.9%)'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26.3%)' 등 상업적 채널을 가장 많이 활용해 '여행지' 탐색과는 많이 달랐음. 공공성이 큰 여행지역 사이트나 TV 방송 등의 '전문/공식 채널' 이용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SNS/커뮤니티' 채널 중 '블로그'와 '지인 추천'이 높음. 이는 '여행지'와 함께 '숙소' 정보를 탐색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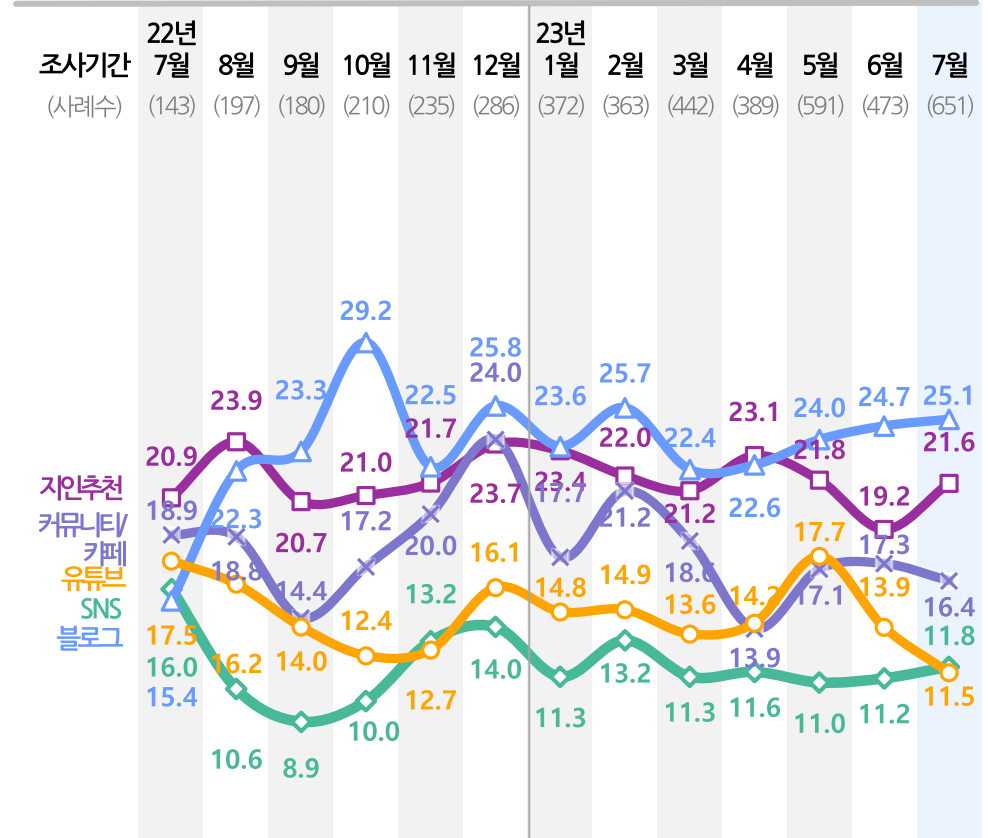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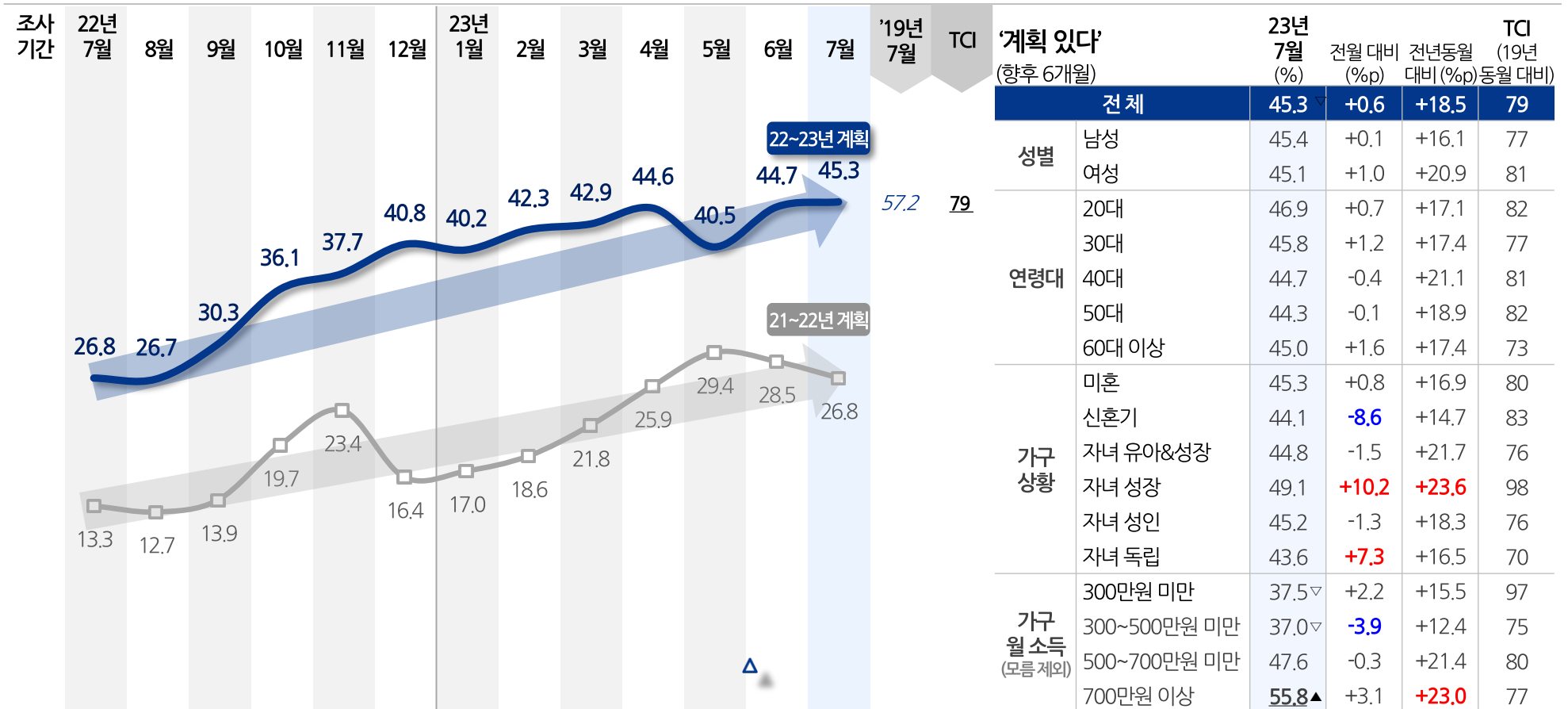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계획률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계획률은 21년 7월 13.3%에서 2년간 꾸준히 상승해 '23년 7월 45.3%에 올랐음.
- 코로나 이전 동월(57.2%) 대비 해외여행 계획률 TCI는 79로 아직 낮은 수준이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됨.
-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해외여행 계획률이 가장 높아, 경제적 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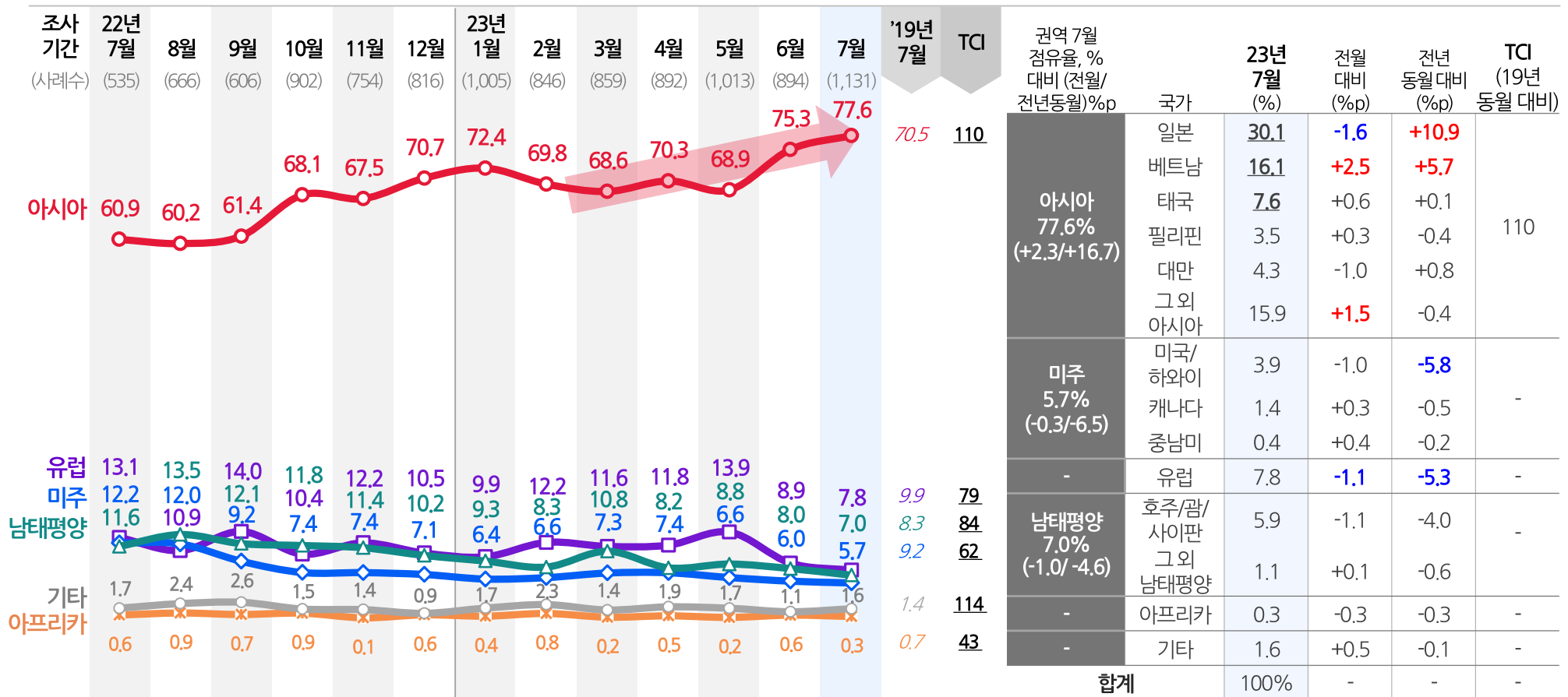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SQ4-1. 그렇다면,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예정 지역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예정 지역 점유율은 '아시아'가 77.6%로 압도적이며, 실제 여행점유율(77.3%)과 같음.
- 권역 내에서는 '일본(30.1%)', '베트남(16.1%)', '태국(7.6%)' 순으로 높음.
- 아시아 다음으로 '유럽(7.8%)', '남태평양(7.0%)', '미주(5.7%)'의 순임.
- 해외여행 예정지 점유율의 TCI는 아시아(110)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9년 동월 대비 낮은 상황임.

[단위: %]



B2-1.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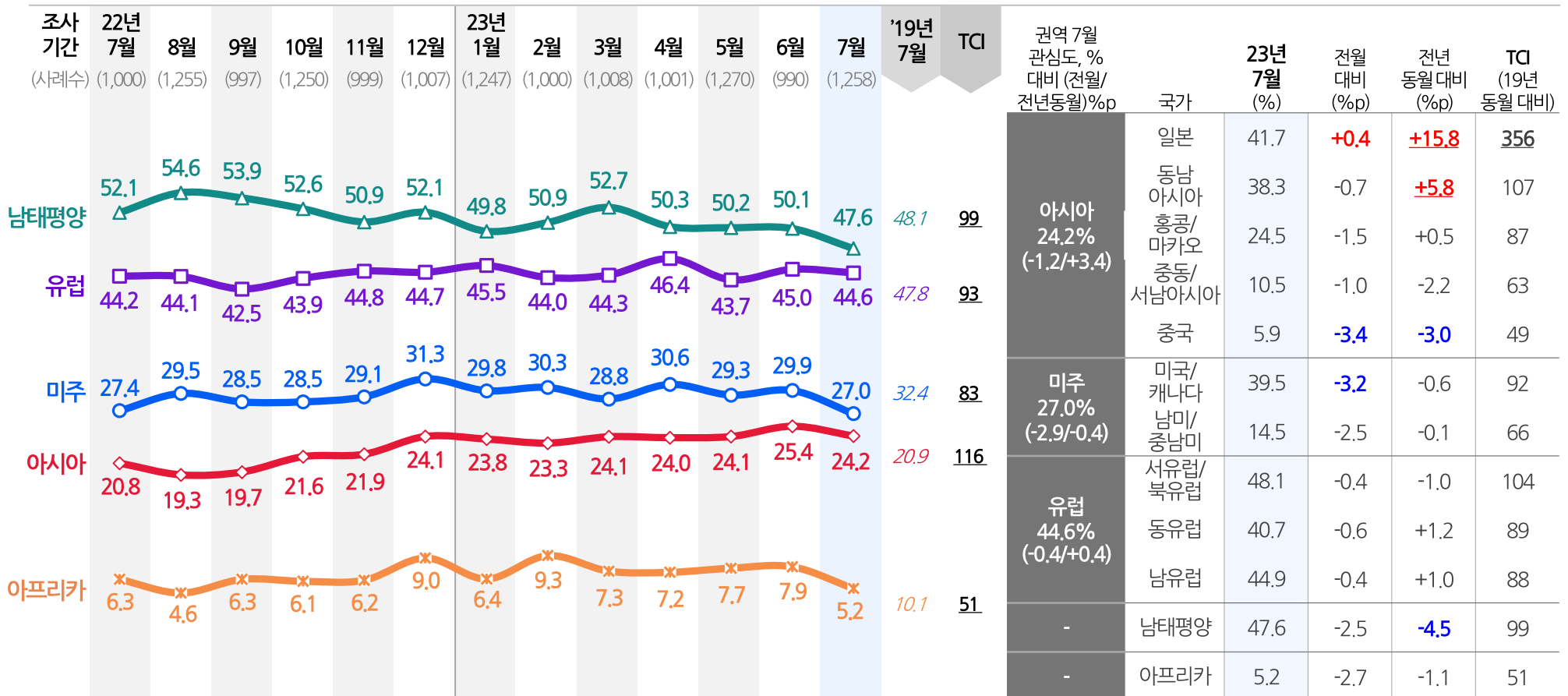
B2-2.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시기에 여행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해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남태평양(47.6%)', '유럽(44.6%)', '미주(27.0%)' 순임.
- 아시아권 내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관심도가 전년 동월 대비 5.8%p, 15.8%p씩 크게 상승함.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의 TCI는 아시아만 116으로 높았고, 이외 지역은 모두 코로나 이전 보다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임.
- 국가별 TCI는 일본이 356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음(2019년 7월 No Japan 캠페인에 따른 특수 현상임).

[단위 : Top2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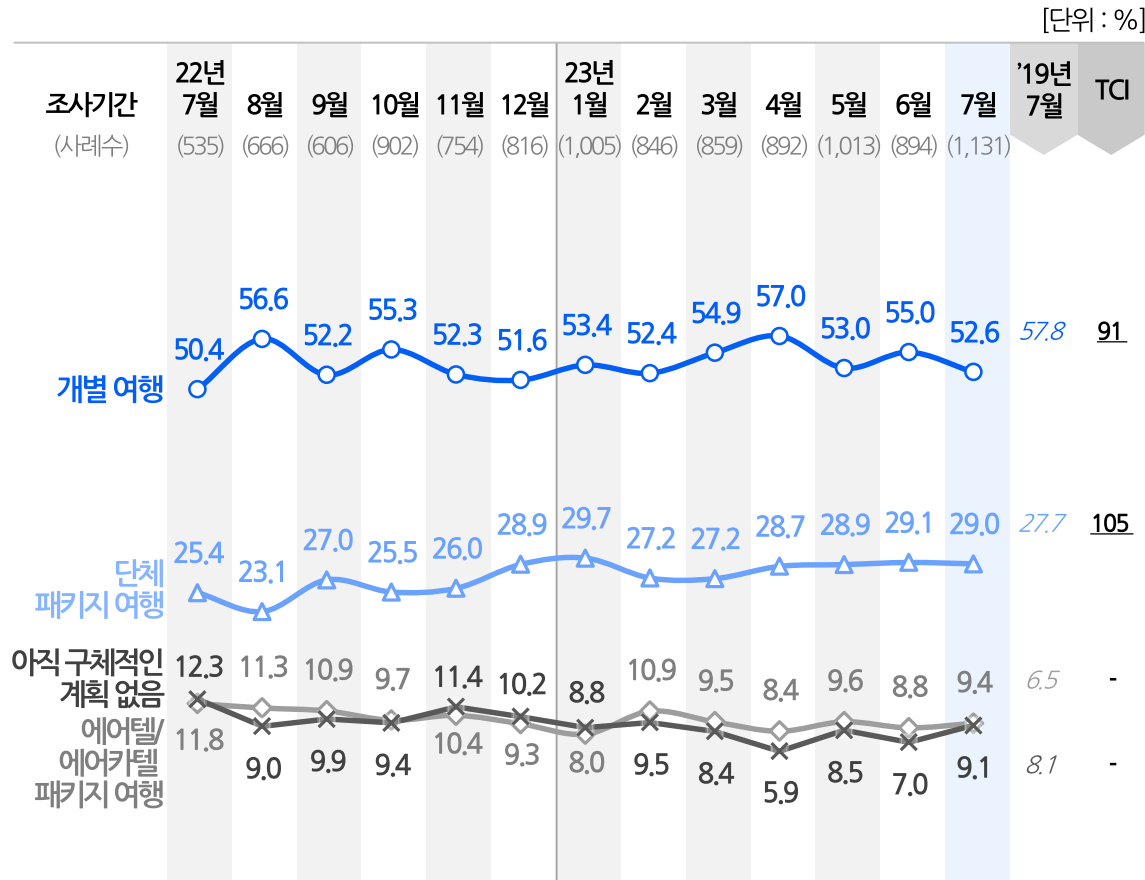


SQ3-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 (5점 척도)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지역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Consumer Insight

4. 선호 해외여행 형태 (향후 6개월)

- 선호하는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 52.6%, '단체 패키지' 29.0%,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9.4% 순임.
- 특히 '개별여행'은 아시아, '단체 패키지'는 유럽,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남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여행지역별 선호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1,131)	(878)	(65)	(88)	(79)	(4)
개별 여행	52.6	54.3▲	56.9	39.7▽	40.5▽	75.4
단체 패키지 여행	29.0	27.5▽	27.6	42.0▲	35.4	24.6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9.4	8.8	10.8	8.0	17.7▲	0.0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	9.1	9.4	4.6	10.3	6.3	0.0

B8. 'OO' 여행은 어떤 형태로 갈 생각이신가요? (개별여행/단체 패키지/에어텔-에어카텔)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참고 자료



2020년	01월	㉠ 중국(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 발병(2019.12) 이후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20.01)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02월	㉠ 국내 집단 감염 발생 및 대규모 유행 등으로 전국 확산 ㉡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국외 유입 및 확산 방지 목적 국내 입국 내외국인 검역 시행 절차) 시행 ㉡ 일부 국가(이스라엘, 요르단 등) 한국인 입국금지 실시
	03월	㉠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2020.03 ~ 2022.04, 상황별/단계적 실시) ㉡ 해외 대부분 국가·지역 한국발 입국금지
	12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발효) ㉡ 5개 항공사 국제선 운항중단(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2021년	02월	㉠ 국내 백신 접종 시작
	11월	㉠ 위드코로나(방역 완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2월	㉠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 발생 및 확진자 급증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사적 모임 제한 4명으로 축소)
2022년	01월	㉡ 트래블버블(코로나19 감염 안전 평가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국가 확대
	03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확대) ㉡ 해외입국 자가격리 의무 면제
	04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05월	㉠ 해외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10월	㉡ 국내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 제한 해제
2023년	03월	㉡ 정부, 내수활성화대책 100만명에 휴가비 600억 지원 발표
	05월	㉠ 정부, 코로나엔데믹 선언; 6월부터 방역 규제 및 격리 의무 해제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격리 5일 권고 전환)

2023년 7월

1주	07.03 ~ 07.09	전국 폭염 특보
		공룡엑스포,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07.08~08.27)
		'2023 세계 합창대회', 강릉에서 개최(07.03~07.13)
2주	07.10 ~ 07.16	전국 호우 특보
		인천국제공항,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스마트패스' 사전등록
		서울 아트페어 어반브레이크 2023 개막(07.13~07.16)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07.13~07.16)
3주	07.17 ~ 07.23	2023 KBO 리그 올스타전 개최(07.15)
		서울 포함 내륙 지방 폭염주의보, 경북 예천, 충북 청주 등 13개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서머뷰티 세일 개최(07.20~08.20)
4주	07.24 ~ 07.30	국제 아웃도어 캠핑&레포츠 페스티벌 서울(07.21~07.23)
		전국 폭염 경보·열대야 및 호우특보
		신림, 분당 등 잇단 문지마 범죄 발생
5주	07.31 ~ 08.06	보령머드축제 개막 (07.21~08.06)
		강원도 곳곳서 여름 축제 개최(홍천, 화천, 태백, 속초, 철원 등)
		전국 폭염 경보·열대야

2023년 6월

1주	06.05 ~ 06.1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현충일(06.06)
		K-TAC(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 '여름아 놀자' 할인 프로모션 진행
2주	06.12 ~ 06.18	서울시 지정 BTS 데뷔 10주년 관광주간, 'BTS 페스타' 서울 시내 주요 명소에서 진행(06.12~25)
		브루노마스 슈퍼콘, 서울에서 개최 (06.17~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23 강릉단오제'(06.18~25)
3주	06.19 ~ 06.25	2023 워터밤 서울, 인천, 부산 등 9개 도시서 개최 (06.23~08.19)
		서울시,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 선정 (Global Traveler, 제 11회 Leisure Lifestyle Awards)
		6.25전쟁일
4주	06.26 ~ 07.02	한국관광공사, '2023 펫(Pet) 관광 포럼' 개최
		전국 해수욕장 개장
		2023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컨슈머인사이트 여행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여행/문화/스포츠 관련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issue

Thank You